[UCI]I804:24011-200000241207

2011年2月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論文

石川 林億齡의 交遊詩 硏究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文敎育專攻

姜 美

石川 林億齡의 交遊詩 硏究

A Study on Sukchon Im Uk-ryong's Poetry on Friendship

2011年 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文敎育專攻
姜 美

石川 林億齡의 交遊詩 研究

指 導 敎 授　權　純　烈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10年 10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文敎育專攻
姜　美

姜 美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敎授　鄭 吉 秀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韓 睿 嫄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權 純 烈　印

2010年　1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목　　차

ABSTRACT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현황과 연구 방법 4

Ⅱ. 交遊詩의 분류와 유형 9
1. 交遊詩의 분류 9
2. 交遊詩의 유형 11
1) 宦路에서의 交遊詩 11
(1) 成守琛 13
(2) 申　潛 22
(3) 崔　演 27
(4) 嚴　昕 31
2) 星山에서의 交遊詩 35
(1) 宋　純 38
(2) 金允悌 41
3) 沙門과의 交遊詩 43
(1) 能　師 44
(2) 玉上人 45
(3) 仁　師 46

Ⅲ. 交遊詩의 風格 50
1. 淸新 51
2. 高潔 55

Ⅳ. 결론 61

참고문헌 63

ABSTRACT

A Study on Sukchon Im Uk-ryong's Poetry on Friendship

Kang Mi

Advisor : Kwon soon-yoel Litt.D.

Major in Sino-Korean Literatur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thought and character of Im Uk-ryong(1496~1568), focusing on his poetry on friendship.

This study confined the focus to Im Uk-ryong's poetry on friendship, paying attention to the friendship he had literary persons from diverse areas including Honam area. With a focus on the poetry on friendship, the study analysed categories, classification and types and characters of the poetry.

The points of the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1. His life followed the following course: 'Seongsan(before government service) → government service → returning to Seongsan → returning to government post → returning to Seongsan again. In addition, The course is based on the following areas: 'villages around Haenam and Seongsan, Hanyang, Seongsan and neighboring villages, and Gangwondo and Seongsan.

2. His poetry on friendship is categorized vertically and horizontally. The horizontal relations were made with peers and Buddhist monks and the vertical relations were made with junior scholars. The vertical relations between teachers and pupils were excluded from the category of the friendship poetry.

3. His friendship poetry is classified according to periods: government post, Seongsan and Buddhist monks.

4. His friendship poetry is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types: Confucian realism, Zhangzi's unworldliness, Buddhism friendly tendency and spiritual orientation, and description of natural scenery. The types of friendship poetry based on the category above are presented as follows:

1) Friendship at Government Post

There are a total of 45 poems he wrote while being in the government post. The subjects of the poems were Sung Su-chim(1493~1564), Shin Jam(1491~1554), Choi Yeon(1503~1549) and Um Hon(1508~1553), which were affected by Confucian realism and Zhangzi's unworldliness.

(1) Friendship poems Im Uk-ryong sent to Sung Su-chim

They were mainly affected by Confucian realism and Zhangzi's unworldliness.

(2) Friendship poems Im Uk-ryong sent to Shin Jam were affected by Confucian realism and Zhangzi's unworldliness.

(3) Friendship poems Im Uk-ryong sent to Choi Yeon were affected by Zhangzi's unworldliness.

(4) Friendship poems Im Uk-ryong sent to Um Hon were affected by Zhangzi's unworldliness. In addition, they show gaps from Confucian realism and environmental background as a reason why he had friendship with Buddhist monks.

The poems he wrote at his government post were affected by Confucian realism and Zhangzi's unworldliness.

2) Friendship Poetry at Seongsan

There are a total of 23 poems on friendship he wrote at Seongsan. Most of the poems sent to Song Sun(1493~1582) and Kim Yun-he(1501~1572) dealt with friendship.

(1) Friendship poems Im Uk-ryong sent to Song Sun were affected by Zhangzi's unworldliness. 「Hwagichon」 also shows gaps with Confucian realism.

(2) All the friendship poems Im Uk-ryong sent to Kim Yun-je were affected by Zhangzi's unworldliness.

All the poems he wrote at Seongsan were affected by Zhangzi's

unworldliness.

3) Friendship poems orienting Buddhist monks

There are a total of 76 poems on friendship he wrote towards Buddhist monks. The poems he sent to Neungsa, Oksangin and Insa showed his buddhism friendly tendency. In addition, it was discovered that Buddhism was one of his spiritual inclinations.

(1) The poems he sent to Neungsa showed his taste of Buddhism and spiritual inclinations.

(2) The poems he sent to Oksangin showed that he was fascinated with beautiful natural scenery, and intended to stay in nature.

(3) The poems he sent to Insa showed his taste of Buddhism and his detailed description on nature.

5. The poems on friendship are characterized by freshness, integrity and character.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조선 중기(16세기)에 이르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시인들이 다수 등장하게 된다. 李晬光의 『芝峯類說』에 의하면, '朴祥・林億齡・林亨秀・金麟厚・梁應鼎・朴淳・崔慶昌・白光勳・林悌・高敬命' 등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대표적 시인들이다.[1] 이들은 星山의 溪山風流에 출입하던 詩人墨客들이다. 박상・임억령・양응정・고경명 등은 金成遠・鄭澈 등과 더불어 사승 및 교유관계를 유지하며 息影亭詩壇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다.[2]

15세기 말부터 16세기는 士林派와 勳舊派의 대립 속에서 己卯士禍를 비롯한 많은 사화가 일어나 사림파 학자들이 黨爭을 피하여 낙향을 하는 곳이 이곳 호남이었다. 낙향한 문인들이 溪山風流를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樓亭文化'이다. 당시의 '누정'은 자연 경관을 기반으로 지어졌고, 풍류와 문화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누정은 휴식 공간과 더불어 '交遊의 공간'이었다. 이 누정을 중심으로 한 詩會 및 詩社는 곧 詩壇을 형성하는 중요한 모임이 되었다. 16세기 호남에는 누정을 중심으로 한 시단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 중 임억령을 중심으로 한 息影亭詩壇에 속한 문인들이 16세기 호남문화를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息影亭'은 棲霞 金成遠(1525~1597)이 자신의 장인이자 스승인 石川 林億齡(1496~1568)을 위해 지어준 정자이다. 김성원이 지어준 식영정을 중심으로 하여 식영정시단이 형성된 것이다. 식영정의 주인이자 식영정시단의 좌장인 임억령은 나머지 문인들의 시 스승이며, 당대 호남의 詞宗[3]으로서 주변 문인들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주변 문인들의 평가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頃世詩人多出於湖南 如朴訥齋祥 林石川億齡 林錦湖亨秀 金河西麟厚 梁松川應鼎 朴思菴淳 崔孤竹慶昌 白玉峯光勳 林白湖悌 高苔軒敬命 皆表表者也." (李晬光, 「詩藝」, 『芝峯類說』 卷14, 文章部 7)

2) 권혁명, 「16세기 石川 林億齡과 息影亭 詩壇」, 『漢文學報』 15, 우리한문학회, 2006.

3) "江南詞宗吾石川 文彩風流今謫仙." (白光勳, 「金陵記懷贈棲霞主人」, 『玉峯詩集』 下, 『韓國文集叢刊』 47, 138면)

찾아갈 곳 있기에 문밖으로 나왔다가 화양동 계곡으로 잘못 들어 왔구나. 詩仙이 이 사이에 살고 있음인가 온 골짝 가득히 구름이 옹호했네.[4]

河西 金麟厚(1510~1560)는 '임억령이 살고 있는 곳을 신선이 사는 華陽洞'이라 명명하였다. 이는 김인후가 임억령을 어떻게 여겼는가를 명약하게 보여주는 실례이다. 김인후는 임억령을 '詩仙'으로 칭송하여 李白과 동등한 대상으로 예우하였다.

석천은 옛 隱士라. 휘두르는 붓 끝에 風雨가 인다. 俊逸하고 淸新하다는 것을 지금 公에게 合하여 하나이리오. 흥이 나면 종이 백장을 써치우고, 잠깐 사이에 시 卷帙을 이룬다오. 나 같은 재주 부끄럽기만 하여, 마루와 방을 엿보지도 못하오. 한자리에서 가르침을 받으니, 같은 시대에 난 것이 얼마나 다행이오. 平生에 무릎을 굽히지 않았는데, 오늘에야 公의 앞에 굽히나이다.[5]

임형택은 「『石川集』解題」에서, "栗谷은 일찌기[6] 선생의 詩才에 감복한 나머지 '平生不屈膝 今日爲公屈'(평생 무릎을 굽히지 않았는데 오늘 公에 대해서 굽힌다는 뜻)이라고 하였던 바, 石川詩의 風格에 언급하여 '俊逸과 淸新을 지금 公은 함께 갖추었다'고 하였다. 杜甫가 李白의 詩風을 俊逸과 淸新을 구비한 것으로 말하였는데, 栗谷은 石川詩에서 李白의 風格을 발견한 것이다."[7]고 하였다.

이는 이이의 임억령에 대한 평가로써 임억령은 豪放함과 낭만성을 겸비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이는 임억령이 잠깐 사이에 卷帙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시에 재주가 있음을 부러워하였으며, 임억령의 재주에 미치지 못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다. 아울러 임억령과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겼으며, 누구에게도 무릎을 굽힌 적이 없는데 임억령 앞에서는 무릎을 굽힐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누군가에게 무릎을 굽힐 수 있다는 것은 임억령에 대한 이이의 존경스런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다.

근자에 시로써 이름을 날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그 시격이 奔放雄洋하여 長江大河

---

4) "出門有所適 悟入華陽洞 詩仙在此間 一壑閑雲擁." (金麟厚, 「石川第酬唱」, 『石川集』, 驪江出版社, 1989, 322면) 이후 『석천집』의 인용은 영인본(여강출판사, 1989)의 해당 면만을 표시한다.

5) "石川古遺士 風雨生揮筆 俊逸與淸新 公今合爲一 興來百紙盡 倏忽成卷帙 小子才可愧 不能窺堂室 一席得親炙 何幸同時出 生平不屈膝 今日爲公屈." (李珥, 「次林石川億齡韻」, 『栗谷全書』 卷1)

6) 『石川集』에 수록된 임형택의 「『석천집』해제」에 '일찌기'로 표기되어 있어 '일찌기'로 표기한다.

7) 임형택, 「『石川集』解題」, 『석천집』, 여강출판사, 1989, 19~20면.

처럼 晝夜로 도도히 흘러도 다하지 않는 분은 오직 石川선생 한 분뿐이라 하겠으며 그밖에 凜烈하신 기절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이목에 너무도 빛나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시보다 더욱 뛰어난다 하겠다.[8]

임억령이 죽은 뒤 52년(1619) 정월에, 橘屋 尹光啓(1559~?)가 『석천집』의 서문을 지었다. 이때 임억령의 외손자 金壓의 請에 의해서 문집 발간을 전제로 지었다고 한다.[9] 「石川先生集序」에 드러난 윤광계의 생각에 시로써 이름을 날린 사람은 많지만 '奔放雄洋', '長江大河' 한 사람은 임억령뿐이라고 하였다. 이는 임억령의 시풍이 長江처럼 힘이 넘쳐나고 웅장하며 매우 광대함을 묘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임억령의 시는 주변 문인들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주변인들의 평가야말로 임억령의 시가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임억령의 시에 대한 평가는 극찬에 가깝다고 하겠다.

임억령을 비롯한 호남의 문인들은 다정다감한 시편으로써 때로는 울분과 비통함을 혹은 정의와 진리를 시에다 담아내어 당대의 문사는 물론 왕으로부터 경대부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많은 사람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다. 영남이 문학을 통하여 道學을 숭상했다면 호남은 문학을 통하여 낭만과 풍류를 실현했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억령이 호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문인들과 교유를 한 점에 주목하여 임억령의 교유시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을 임억령의 교유시에 한정한 이유는, 임억령의 교유시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억령의 교유시를 연구함으로써, ① 임억령의 성향, ② 그 사상적 기반의 변화, ③ 교유시의 풍격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성과는 석천 임억령의 교유시에 관한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데 미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石川 林億齡의 交遊詩 硏究는 奎章閣本 『석천집』[10]과 『국역 석천집』[11]을 臺本으로 한다.

---

8) "近以詩鳴者不一 而至於奔放雄洋 如長江大河 日夜滔滔不渴 則惟吾石川先生 一人而已." (尹光啓, 「石川先生集序」, 『석천집』 53면)

9) 光州廣域市・鄕土文化開發協議會, 「石川年譜」, 『石川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서출판 라이프, 1996, 312면.

10) 임억령, 『석천집』, 여강출판사, 1989.

11) 최한선 외, 『국역 석천집』, 전라남도, 1996.

2. 연구의 현황과 연구 방법

임억령의 교유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임억령의 교유시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없다.[12]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교유관계를 밝히고 있는 연구는 權純烈(1996)의 「林億齡과 梁應鼎의 酬唱詩에 대한 硏究」, 權赫明(2006)의 「16세기 石川 林億齡과 息影亭 詩壇」 등이 있다. 먼저 권순열은 양응정과의 교유 관계를, 권혁명은 양응정・김성원・고경명・정철 등과의 교유 관계를 언급하였다.

권순열(1996, 234면)은 「林億齡과 梁應鼎의 酬唱詩에 대한 硏究」에서 '庚戌年 겨울에는 林億齡과 梁應鼎 兩人 사이에 아주 獨特한 酬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詩로써 雌雄을 決하는 對決, 다시 말하면 詩戰이 벌어진 것이다. 林億齡과 梁應鼎의 棠城에서의 酬唱은 단순한 親交의 酬唱이 아니었다'라고 언급하며 이들의 교유 관계를 서술하였다.

권혁명(2008, 14면)은 「湖南 詞宗 林億齡의 詩作 敎育 一考 - 梁應鼎과의 '棠城酬唱詩'를 중심으로」에서 『석천집』의 내용을 인용하며 이들의 교유 관계를 밝혔다.[13] 권혁명은 양응정이 임억령을 찾아 해남으로 간 1550년 전보다 훨씬 이전인 1540년에 이미 이들이 서로 대면하였으며, 사제지간은 이들이 첫 대면한 1540년 이후에 맺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권혁명은 『松川遺集』(卷2)의 「仰次 3」에 기록된 문헌적 자료에 의거하여 임억령과 고경명은 私塾 관계라고 짐작하였다. 권혁명(2006, 246~247면)은 「16세기 石川 林億齡과 息影亭 詩壇」에서 "霽峰 高敬命은 15세부터 이미 임억령의 문하에서 학문과 문장을 배웠다. 처음 수학한 해를 고경명의 생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대략

---

12) 임억령의 교유시와 관련된 '장선희, 「石川 林億齡의 交遊詩硏究」,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93'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실제 필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석사학위 논문을 위의 주제로 쓰지 않았다고 함.

13) "……나는 그때 영인과 장석을 욕되게 하며 진부한 말로 머리털과 빗을 아프게 했지. 그대가 지은 부(賻)를 보고서야 구름을 헤치며 장쾌하게 해를 보았네. 불러와서 그 모습을 살펴보니 눈동자와 머리털이 더욱 검게 되었네. 물러나와 더욱 배우기를 힘쓰니 마치 농사꾼이 호미질하고 나질하는 것처럼 부지런히 했네. 후생은 옛부터 두렵다고 했거니와 남의 창을 들고 곧바로 그의 방에 들어갔네.……(……余時忝郢匠 陳言痛髮櫛 及都子之賦 披雲快見日 呼來相其狀 眼珠髮更漆 退來益力學 若農勤耰鋤 後生古云畏 操戈直入室.……)" 『국역 석천집』에는 부의 한자를 '부(賻)'로 병기하였으나 이는 '賦'의 오기로 사료된다. (최한선 외, 『국역 석천집』 2책, 전라남도, 1996, 181면)

1548년 무렵이 된다. 이때는 임억령이 담양과 해남에 있을 때인데, 양응정이 찾아왔던 1550년 겨울과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당시 해남에서 임억령의 私塾이 이루어졌고, 그때 고경명이 임억령의 문하생으로 있지 않았나 추측된다."고 하였다. 권혁명은 양응정의 「仰次 3」에 의거하여 고경명이 임억령의 私塾에서 머물었음을 추정하였다.[14] 하지만 이들의 교유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문헌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아울러 이들은 학문을 교유한 횡적 관계보다는 종적 관계에 가깝다 할 수 있다.

김성원의 「年譜」에 의거하면, 임억령은 고경명·정철 등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 '하서 김인후와 석천 임억령을 스승으로 삼고, 송강 정철과 제봉 고경명 등의 현자들이 도와 의로써 교유를 하였다(以河西石川爲師 松江高峯霽峯諸賢 爲道義交)' 라는 내용을 통하여 이들의 관계가 사제지간임을 알 수 있다.[15]

문헌자료에 의거해 볼 때, 임억령은 양응정·김성원·고경명·정철 등과 사제지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 박상과 朴祐는 임억령의 스승으로서 임억령과 종적 관계인 사제지간이다. 종적 관계인 사제지간은 교유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제지간은 '交遊'보다는 '傳受' 관계에 가깝기 때문이다. 동일한 종적 관계에 있는 선후배지간은 전수와 교유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의 교유의 범주로 한정한다. 횡적 관계인 동년배와 沙門 관계 역시 교유 관계를 형성하므로 교유의 범주로 한정한다.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교유의 범주는 동년배, 沙門, 후배 간의 관계이다.

임억령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석천집』과 관련된 「『석천집』해제」[16]가 있고, 그보다 앞서서 「奎章閣韓國圖

---

14) "서재에 눈보라 치는 밤, 추운 날 개가 헛것을 보고 짓고, 노래를 올리는 정원의 목은 쉬었고, 운을 부르는 나율의 말은 어눌하네. 모두들 둘러 앉아 기쁜 일 모실 때면, 막 급제라도 하고 온 사람처럼 총애해 주셨지. 다만, 한스러운 건 邾莒의 부류로서, 사문에서 오래있지 못했네. 돌아감을 아뢰니 얼굴 모습 쉽게 하기 괴롭고, 다 드러내지 못하는 마음에 감히 붓을 잡았습니다.(書齋風雪夜 寒犬吠無物 呈歌鄭遠嗄 呼韻羅慄吃 擧坐陪歡咍 寵若方來紱 但恨邾莒流 師文年未七 告歸苦容易 微旨敢操筆.)" 권혁명은 2008년에 발표한 「湖南 詞宗 林億齡의 詩作 敎育 一考 - 梁應鼎과의 '棠城酬唱詩'를 중심으로」에서 '師文年未七'을 '문왕을 본받은 지 7년이 되지 못했네'라고 풀이하였다. '師文年未七'은 '문왕을 본받은 지 7년이 되지 못했네'라고 풀이하는 것이 옳다. (권혁명, 「16세기 石川 林億齡과 息影亭 詩壇」, 『한문학보』 15, 우리한문학회, 2006, 247면 인용)

15) "築棲霞堂于昌平之星山 爲終老計 自是優遊林泉沈潛書籍 不知日之將夕 以河西石川爲師 松江高峯霽峯諸賢 爲道義交 迭相塤笛 往來不絶. ……" (김성원, 「年譜」, 『棲霞堂遺稿』 下, 160면)

16) 임형택, 앞의 글, 11~21면.

書解題」[17]가 있다. 우선 임형택은 「『석천집』해제」에서, 임억령의 문학세계를 시대적인 맥락에서 접근하여 개성적인 측면까지 객관적이고 개괄적으로 서술함은 물론 판본 또한 언급하였다. 임형택은 16세기 정치현실로 인해 은거의 경향으로 기울어지던 士林派의 테두리 속에서 임억령을 깊이 연구함과 동시에 그의 개인적 기질도 함께 언급하며, 관료로서는 疏闊했지만 자연 속에서는 高潔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언급하였다. 임억령의 작품 세계는 현실과 거리를 두고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예술세계를 추구하였으며, 그러한 자유정신으로 말미암아 세속성이 결여되게 되었고, 조탁에 힘쓰지 않는 자연스러운 형식을 취했으며 낭만적인 경향을 보여준 것으로 파악하였다.[18]

이 외에 임억령을 중심으로 한 '임억령에 대한 인물 연구'[19], '임억령의 시에 관한 연구'[20], '임억령이라는 인물과 시세계를 함께 파악한 연구'[21]가 있다. 박준규는 「息影亭의 創建과 息影亭記」에서 김성원과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임억령의 「식영정기」를 분석하였다.[22]

'임억령에 대한 인물 연구' 중 임용주의 「石川 林億齡先生의 生涯와 선비思想」은 後孫으로서 先祖에 대한 추앙의식이 전반적으로 배어 있으며, 전형적인 선비정신이 투철한 학자인 임억령이 莊子의 坐忘·心齊·調息의 사상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23] '임억령의 시에 관한 연구' 중 박은숙의 「石川 林億齡의 生涯과 作品世界」는 임억령의 문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으며 작가의 의식이나 작품의 이해

---

17) 임형택, 「奎章閣韓國圖書解題」, 서울대학교 奎章閣, 1979.
18) 박은숙, 「石川 林億齡의 生涯과 作品世界」, 『漢文學論集』 10, 근역한문학회, 1992, 87면.
19) 김선기, 「石川 林億齡과 星山洞」, 『石川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서출판 라이프, 1996.
임용주, 「石川 林億齡先生의 生涯와 선비사상」, 『방통대논문집』 8, 1988.
홍우흠, 「石川 林億齡의 環境과 生涯」, 『石川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서출판 라이프, 1996.
20) 권순열, 「石川 林億齡의 '古器歌' 硏究」, 『古詩歌硏究』 7, 韓國古詩歌文學會, 2000.
권두환, 「石川 詩文學의 特徵」, 『石川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서출판 라이프, 1996.
권추자, 「林億齡의 漢詩 硏究」, 誠信女子大學校 석사학위 논문, 1990.
_____, 「石川 林億齡의 詩世界」, 『誠信漢文學』 2, 誠信漢文學會, 1990.
정익섭, 「『石川集』을 읽고」, 『금호문화』 48, 1989.
최한선, 「石川 林億齡 詩文學 硏究」, 成均館大學校 박사학위 논문, 1994.
_____, 「石川詩의 作品世界」, 『石川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선출판 라이프, 1996.
_____, 「石川詩에 나타난 思想的 傾向」, 『대구어문총론』 10, 대구어문학회, 1992.
21) 김동준, 「石川 林億齡의 生涯와 詩世界」, 『한국한시작가연구』 4, 한국한시학회, 1999.
박은숙, 「石川 林億齡의 生涯과 作品世界」, 『漢文學論集』 10, 근역한문학회, 1992.
22) 박준규, 「息影亭의 創建과 息影亭記」, 『湖南文化硏究』 14, 全南大學校湖南文化硏究所, 1985.
23) 박은숙, 「石川 林億齡의 生涯과 作品世界」, 『漢文學論集』 10, 근역한문학회, 1992, 87면.

와 관련해 생애를 고찰하면서 작품에 나타나는 작가 의식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순열의 「林億齡과 梁應鼎의 酬唱詩에 대한 硏究」는 임억령과 양응정의 棠城酬唱詩와 관련된 논문이다. '임억령이라는 인물과 시세계를 함께 파악한 연구' 중 김동준의 「石川 林億齡의 生涯와 詩世界」에서는 유가적 현실주의, 장자적 탈속주의, 친불교적 경향, 혹은 정신적 지향 등을 두루 지적하고 있다. 즉, 임억령의 시세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억령의 생애를 네 단계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그의 시세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임억령의 생애와 그의 시를 면밀히 분석한 글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 논문 중에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임억령의 교유시를 언급한 글도 있고, '湖南詩壇'이나 '湖南士林'에서의 임억령의 역할과 관계를 논한 글도 있다.[24] 권혁명의 「16세기 石川 林億齡과 息影亭 詩壇」에서는 호남 지역의 임억령·양응정·김성원·고경명·정철의 시세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예비 단계로 임억령의 당대적 위상과 5인의 교유 양상 및 시단 형성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임억령이 속해 있는 '호남시단'이나 '호남사림'에서의 역할과 관계를 밝히고 있으나 교유와 관련된 부분의 연구는 여전히 미미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임억령이 교유한 시에 한정하여 그의 시를 분석하고자 한다.

임억령의 교유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 박상(1474~1530, 4首), 박우(1476~1546, 8首)는 임억령과 사제지간이므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교유시의 빈도수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김성원(1525~1597, 15首), 양응정(1519~1581, 19首) 등은 임억령의 제자이거나 제자 관계이므로 이들 역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억령의 교유시는 규장각본 『석천집』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분류한다. 필요에 따라 『국역 석천집』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규장각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214수도 연구 대상에 포함한다. 교유시의 분류 시기는 「『석천집』해제」의 편차 및 내용을 저본으로 하여 분류한다. 교유시의 유형은, 김동준의 「石川 林億齡의 生涯와 詩世界」에서 살펴본 임억령의 시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① 유가적 현실주의, ② 장자적 탈속주의, ③ 친불교적 경향, ④ 정신적 지향, ⑤ 자연경관의 묘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24) 권혁명, 「16세기 石川 林億齡과 息影亭 詩壇」, 『漢文學報』 15, 우리한문학회, 2006.
박준규, 「16世紀의 湖南詩壇과 石川 林億齡」, 『石川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서출판 라이프, 1996.
이해준, 「朝鮮 中期의 湖南士林과 林億齡」, 『石川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선출판 라이프, 1996.

다.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교유의 범주는 동년배, 沙門, 후배 간의 관계이다. 임억령의 시는 약 2,500여 수가 있으며, 교유와 관련된 교유시는 450여 수에 이른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교유시는 140여 수에 달한다.

각 장절의 연구방법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交遊詩의 분류와 유형에서는 먼저 임억령의 생애를 기준으로 삼아 교유시를 시기 별로 분류한다. 나아가 交遊詩의 유형에서는 교유시의 시기별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각 교유시에 나타난 임억령의 사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宦路에서의 교유시는 총 45수가 이에 해당한다. 임억령의 환로 시기는 성산으로 들어가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 시기에 임억령과 교유 관계를 형성한 成守琛(1493~1564), 申潛(1491~1554), 崔演(1503~1549), 嚴昕(1508~1553) 등과의 교유시에 나타난 임억령의 사상적 기반을 살펴본다.

2. 星山에서의 교유시는 총 23수가 이에 해당한다. 임억령의 성산 시기는 관직에서 물러나 성산으로 들어온 시기와 다시 관직에 나아갔다 물러나 성산으로 들어온 시기로 나뉜다. 이 시기에 임억령과 교유 관계를 형성한 宋純(1493~1582)과 金允悌(1501~1572) 등과의 교유시에 나타난 임억령의 사상적 기반을 살펴본다.

3. 沙門과의 교유시는 총 76수가 이에 해당한다. 임억령은 宦路와 星山 두 시기에 모두 沙門들과 교유를 하였다. 沙門과의 교유시는 宦路와 星山의 시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임억령이 沙門과의 어떤 내용을 주로 교유했는가를 살펴본다.

제3장 交遊詩의 풍격에서는 임억령의 교유시에 나타난 풍격인 淸新, 高潔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4장 결론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를 총괄한다.

Ⅱ. 交遊詩의 분류와 유형

1. 交遊詩의 분류

「『석천집』해제」의 편차 및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임억령의 생애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기는 出仕 이전의 시기로 임억령이 1525년(30세) 文科及第 이전의 시기이다. 1516년 임억령이 進士試에 합격한 이후 1519년 己卯士禍로 인하여 낙향한 시기도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시기는 宦路가 시작되는 1525년(30세) 문과급제를 했을 때부터 乙巳士禍로 인하여 1545년(50세) 錦山郡守를 사직할 때까지 20여 년간의 관직 생활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1545년 금산군수를 사직하고 낙향한 시기로, 1552년(56세)에 再出仕하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네 번째 시기는 1552년(57세)에 同副承旨에서부터 1557년(62세) 3월 潭陽府使에 배수될 때까지의 시기이다.

다섯 번째 시기는 1557년(62세)에 담양부사로 부임되었을 때부터 임억령이 73세로(156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시기이다.

宦路의 시기는 두 번째, 네 번째 시기가 이에 해당하고, 星山의 시기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시기가 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임억령의 삶은 '星山(出仕 이전) → (出仕) 宦路 → (歸鄕) 星山 → (再出仕) 宦路 → (再歸鄕) 星山'의 순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지역에 근거해 보면, '고향 海南과 星山 주변 고을 → 漢陽 → 星山과 주변 고을 → 江原道 → 星山'이다.

교유시는 먼저 宦路와 星山의 두 단계로 분류가 가능하다. 나아가 宦路와 星山 두 시기에 형성된 沙門과의 교유 단계로 분류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교유시는 ① 宦路에서의 교유시, ② 星山에서의 교유시, ③ 沙門과의 교유시 세 영역으로 분류하여 그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임억령이 4首 이상 교유한 인물은 아래의 <표1>과 같다.

성명	生沒年度	字	號	교유시
金允悌	1501~1572	恭老	沙村	4首
奇大升	1527~1572	明彦	高峯	5首
朴 淳	1523~1589	和叔	思菴	6首
白光勳	1537~1582	彰卿	玉峯	5首
成守琛	1493~1564	仲玉	聽松, 竹雨堂, 坡山淸隱	14首
宋 純	1493~1582	守初, 誠之	企村, 俛仰	19首
沙門	55명 (고유명사로 표현된 '僧'의 수, '僧'으로만 표현된 시 - 8수, '鄕僧'으로만 표현 된 시 - 3수.)			76首
申 潛	1491~1554	元亮	靈川子, 峨嵯山人	9首
嚴 昕	1508~1553	啓昭	十省堂	13首
吳 祥	1512~1537	祥之	負暄堂	7首
李 珥	1536~1584	叔獻	栗谷, 愚齋	4首
鄭士龍	1491~1570	雲卿	湖陰	7首
曺汝諶	1518~1582	常仲	喚鶴	7首
曺駿龍	?~?	白雲		12首
崔山斗	1483~1536	景仰	新齋, 籠中子	6首
崔 演	1503~1549	演之	艮齋	9首

<표 1: 임억령이 4首 이상 교유한 인물>

교유 인물의 선정은 동문, 沙門, 후배 간의 교유 관계에 한정하여 선별하였다. 그 결과 『석천집』에 수록된 2,500여 수 중 450여 수가 교유 관계를 나타낸다. 이 수 가운데 140여 수가 본 논문에서 정의한 교유시의 범주에 해당한다.

빈도수가 높다고 주요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유시의 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은 친교를 교유한 내용이 그만큼 다른 이들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유시의 출현 빈도에 의하면 4번째에 해당한 '曺駿龍(?~?)'은 생몰 연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억령과 어떤 교유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교유시의 빈도수는 낮으나 임억령의 후배임과 동시에 星山에서 머물었을 때의 교유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金允悌(1501~1572)'는 주요 자료로 사료되어 연구대상에 포함시킨다.

교유시의 분류 단계에 해당한 주요 교유 인물은 다음과 같다.

먼저, 宦路에서의 교유 인물은 成守琛(1493~1564), 申潛(1491~1554), 崔演(1503~1549), 嚴昕(1508~1553) 등이 해당한다. 성수침과 신잠은 임억령이 1516년 진사시에 합격한 후부터 기묘사화 시기에 교유한 인물로 추정된다. 최연과 엄흔은 임억령이 1525년 문과에 급제한 시기에 교유한 인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星山에서의 교유 인물은 宋純(1493~1582)과 金允悌(1501~1572) 등이 해당한다. 송순과 김윤제는 임억령이 두 번째 星山 시기에 교유한 인물로 추정된다.

끝으로, 沙門과의 교유는 能師, 玉上人, 仁師 등이 있다. 能師와 仁師와는 첫 번째 星山 시기에, 玉上人은 두 번째 宦路 시기에 교유한 인물로 추정된다.

2. 交遊詩의 유형

1) 宦路에서의 交遊詩

宦路의 시기는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宦路가 시작되는 시기로, 1525년(30세)부터 1545년(50세)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宦路에 다시 출사하는 시기로 1552년(57세)부터 1557년(62세)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만 의거한다면 임억령은 벼슬자리에 적합하지 못한 인물로 보일 수 있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明宗 9년 甲寅(1554) 사간원이 강원도 관찰사 임억령의 죄를 고하고 파직할 것을 청하여 윤허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강원도 관찰사 林億齡이 부임하여 도착한 이래로 職務는 보지 않고 그 道의 簿牒은 都事에게 맡겨놓고 날마다 병을 조리하는 일에만 전념하여 방에 들어앉아 두터운 종이로 문을 발라 밤낮없이 등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의 백성들이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한 지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州가 단독으로 支供하지 못하면 근방의 고을에 나누어 배정하여 돌아가면서 지공하게 하므로 이것을 실어 나르는 소와 말이 도로에 연달았으며 음식을 마련하는 사이에 법을 범하는 일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平昌의 官婢를 가까이 사랑하여 말 태워 따르게 하여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하고 시를 읊는 것만 일삼으니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를 파직하소서." 하니, 그를 체직하라고 답하였다. 다시 아뢰니 윤허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억령의 사람됨은 성품과 도량이 넓고 詞章이 뛰어났다. 그러나 사무에는 소홀하니 그를 吏職에 쓴다는 것은 참으로 그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다. 물의를 초래한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25]

사간원이 '임억령의 罷職을 간청한 글'은 임억령이 재출사한 시기에 기록된 내용이다. 1554년(明宗 9)은 임억령이 星山에서 머물다 江原道 觀察使로 임명된 시기이다. 임억령이 59세의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명종의 명을 받들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된 데에는 아마도 그가 신병을 이유로 1545년(50세) 錦山郡守職을 사임할 당시 완쾌 후 다시 관직에 돌아올 것을 다짐한 데 연유한다. 실은 임억령이 관직을 사임한 근본적인 이유는, 을사사화로 인하여 서로 무리지어 싸우는 黨爭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星山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었던 임억령에게 재부임의 명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벼슬자리에 다시 등용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가 백성을 돌보는 일은 등한시 하고 오로지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일에만 전념한 것으로 내비칠 수도 있다.

이 시기에 지어진 임억령의 시가 주로 自由에 초점을 두고 이를 지향하는 시들에 치중된 점에 비추어볼 때, 을사사화로 인하여 임억령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사신이 말한 바와 같이 성품이 바르고 도량이 넓은 이가

25) "諫院啓曰 江原道觀察使林億齡 自到界之後 不務職事 一道簿牒 專委於都事 日以調病爲事 長處深房 厚紙塗內 晝夜明燭 一道之民 不得見其面目者累朔 而一州不能獨辦支供 則使傍近之邑 分定輪回 牛馬轉輸 絡繹道路 而至於飣餖之間 多行犯法之事 昵愛平昌官婢 馱隨不離 詠詩是務 其爲貽弊於民 取侮於人 不可勝言 請罷其職 答曰 遞之 再啓 依允 史臣曰 億齡爲人 性度恢曠 詞章贍逸 然臨事疎 用於吏職 實非所長 其招物議宜矣." (『조선왕조실록』, 明宗 9년(甲寅, 1554, 嘉靖 33), 6월 13일(壬午) 첫 번째 기사)

백성을 등한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지 그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을사사화 이후 심경의 변화로 인하여 벼슬자리에 뜻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星山에서 나와 다시 관직에 부임한 宦路 시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交遊를 통해서 벼슬자리의 고단함을 달랬으며 은자적인 삶을 주로 토로하였다. **(出仕) 宦路** → (귀향) 성산 → **(再出仕) 宦路** 시기에 임억령이 교유한 이들은 成守琛(1493~1564), 申潛(1491~1554), 崔演(1503~1549), 嚴昕(1508~1553) 등이 대표적이다.

(1) 成守琛

임억령과 교유한 첫 번째 인물은 莫逆之友였던[26] 聽松 成守琛(1493~1564)이다. 성수침의 本貫은 昌寧이고, 字는 仲玉이며, 號는 聽松・竹雨堂・坡山淸隱・牛溪閒民이다. 성수침은 趙光祖의 문인으로 1519년(中宗 19)에 賢良科에 천거되었으나, 己卯士禍(1519)가 일어나 조광조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처형 또는 유배당하자 벼슬을 단념하고 '聽松'이라는 편액을 내걸고 杜門不出하였다. 그 이후로 많은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임억령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성수침에게 출사 권유의 시를 적어 보낸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성수침은 오랫동안 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세가 심하게 기울어 장례조차 지낼 수 없었다. 이에 사간원의 상소로 국가에서 棺槨과 米豆와 役夫를 지급하여 주고 司憲府 執義에 추증되었다. 그는 조선시대 문인들 중 學問과 才德을 갖추고서도 자신의 소신대로 평생을 은거한 사대부의 한 명이다. 현실을 중시하는 유교사회에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평생을 은거로 일관하며 學者로서, 隱者로서 명망이 높았다.[27] 諡號는 文貞이고, 저서로는 『聽松集』이 있다.

성수침은 1519년에 賢良科에 천거됨과 동시에 그가 추종하던 조광조 등이 己卯士禍로 인하여 유배를 되자 바로 낙향하고 출사하지 않았다. 임억령과의 교유는 임억령이 進士試에 합격한 1516년 이후로 추정된다. 임억령 역시 기묘사화로 낙향한 것으로 보아 임억령과 성수침은 '道學'을 기반으로 하여 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26) "與成守琛 守琮兄弟 遂爲莫逆之交." (임억령, 「연보」, 『석천집』, 398면)

27) 권혁명, 「聽松 成守琛 詩世界의 一考察 - '淸隱'의 詩世界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1,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237면.

임억령이 1525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 첫 번째 宦路 시기에 성수침에게 보낸 시는 출사를 권유한 시보다는 道學 사상과 관련된 내용의 교유시가 주를 이룬다. 성수침의 道學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시는 임억령의 두 번째 宦路 시기에도 잘 드러나 있다. 「梁公燮……於其還作詩以寄」는 임억령이 첫 번째 宦路 시기에 성수침의 친구인 능성의 수령에게 '送客序'를 받고 화답한 시이다. 이 시에는 임억령의 유교적 현실주의가 잘 나타나 있다. 이 시가 성수침과 직접적인 교유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임억령의 첫 번째 宦路 시기가 유교적 현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本 詩를 인용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吾友聽松翁	나의 벗 청송옹은
於人不輕許	사람들에게 허락하기를 가벼이 하지 않아
人少不如吾	나와 같지 않는 사람이 적었고
視之如狗鼠	사람들을 개와 쥐 보듯 하였네.
乖離已十年	떨어진 지 이미 십년이나 되어
南北渺齊楚	남과 북이 제와 초처럼 아득하네.
梁子自綾來	양공이 능성으로부터 찾아와
云宰聽松侶	그 고을 수령이 청송의 벗이라 하네.
懷中出一書	품속에서 글 하나를 꺼내는데
乃是送客序	바로 나그네를 보내는 序였네.
序辭峭且味	序에 쓴 말이 높고도 맛이 있어
使我終朝咀	나로 하여금 아침 내내 되뇌이게 하였네.
不得見元賓	元賓은 만날 수 없었지만[28]
得見其所與	그가 보내준 글로 만날 수 있었네.
見書不如面	글로 만나는 것은 얼굴을 대면하는 것만 못하지만
逖矣山川阻	멀도다, 산천으로 가로막혀 있어
吾聞孟軻氏	내 들으니 孟軻씨는
卓立儒之鉅	유학자의 거장으로 우뚝 섰네.
求升聖人堂	성인의 당에 오르기를 구하는 것도
必自孟氏擧	반드시 孟氏로부터 거론된다네.

28) 元賓은 李觀의 字이다. 이관과 孟郊 같은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있던 韓愈는 경박한 교제를 극히 싫어했다. 이러한 한유와 이관의 사귐에 연유하여 한유의 글을 인용하였다.

此人好此書	이 사람이 이 책을 좋아하니
其中必有貯	그 가운데 반드시 쌓여진 것이 있으리라.
苟能充仁義	만약에 仁과 義를 채울 수 있다면
沛然誰能禦	세차게 몰려드는 백성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29]
卷而活一城	정성되이 한 고을을 살리리니
福哉綾之庶	복되도다, 능성의 백성들은.
因書遂成詩	곧바로 글을 써서 시 한 수를 이루어
付與梁公去	양공이 가는 편에 부쳐 보내네.

梁公燮……於其還作詩以寄[30]

시의 제목은 "양공섭이 능성에서 나를 찾아왔다가 '공께서는 우리 고을의 수령을 모르시는가'라고 물었는데, 바로 청송의 친구였다. 그의 序를 꺼내서 보여 주었는데, 말이 간결하고도 뜻이 옛스러웠다. 그는 孟氏의 책을 들기를 좋아했는데, 진정으로 성인의 무리였으니 그가 청송의 친구가 된 것도 까닭이 있었다. 퇴지가 '元賓을 그리워해도 만날 수 없었는데 원빈이 보낸 이를 만나보니 원빈과 같았다'라고 하였다. 나는 능성의 수령에게서 또한 그러한 점을 보았다. 양공섭이 돌아가는 편에 시를 지어서 부친다."이다. 다른 시와 달리 시의 제목이 장황하게 늘어진 이유는 임억령이 성수침에게 보내는 시가 아니라 성수침의 친구인 능성의 수령에게 보낸 시이기 때문이다. 임억령은 능성의 수령을 통하여 성수침과 교유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능성의 수령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시를 지어 전달하였다. 시의 제목이 장황하게 길어진 직접적인 이유는 임억령이 능성의 수령에게 시를 쓰게 된 이유가 이와 같이 장황하였기 때문이다.

임억령은 성수침의 사람됨이 仁義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여겼다. 또한 한유의 성향에 비추어 성수침의 사람 사귐에 대한 철학을 비유하였다. 그래서 능성의 수령에게 보낸 시의 제목에 한유의 글을 인용한 것이다.

'元賓은 만날 수 없었지만, 그가 보내준 글로 만날 수 있었네. 글로 만나는 것은 얼굴을 대면하는 것만 못하지만, 멀도다! 산천으로 가로막혀 있어'의 시구에서 능성

29) "誠如是也 民歸之 由水之就下 沛然誰能禦之." (孟子, 「梁惠王」 上, 『孟子』)

30) "梁公燮自綾來訪我因問曰 公未知吾邑宰耶 乃聽松之友 出其序以示 辭寡而意古 好擧孟氏之書 眞聖人徒也 其爲聽松之友有以也 夫退之云 思元賓而不見 見元賓之所與如元賓焉 予於綾宰亦云 於其還作詩以寄." 인용글에서는 '梁公燮……於其還作詩以寄'으로 표기한다. (임억령, 「梁公燮……於其還作詩以寄」, 『석천집』 2책, 150면)

의 수령이 보낸 '送客序'를 통하여 멀리 있는 성수침과 만나 회포를 풀 수 없음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성수침의 친구인 능성의 수령이 보낸 글을 통해 성수침과 직접적으로 교유하지 못한 아쉬움을 대신하였다. '만약에 仁과 義를 채울 수 있다면, 세차게 몰려드는 백성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정성되이 한 고을을 살리리니, 복되도다! 능성의 백성들은' 등의 시구를 통해 임억령이 유교 사상에 호의적 성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寄聽松(四首)」은 임억령이 두 번째 宦路 시기에 성수침에게 보낸 시이다. 임억령은 성수침이 여러 번 제수되었음에도 출사하지 않고 隱居의 삶을 영유하는 성수침에게 벼슬자리에 나아갈 것을 권유한 시를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其一

每恨箕山叟　　항상 기산의 늙은이들을[31] 원망하는 것은
平生不事堯　　평생 요임금을 섬기지 아니해서였네.
松聲雖可愛　　솔바람 소리 비록 좋다고 하지만
不似聽蕭韶　　순임금의 풍류소리 듣느니만 못해라.

其二

老年行踽踽　　노년을 외롭게 살아가며
抱膝憶長身　　무릎을 부둥켜안고 한창때를 그리네.
明月蒼松屋　　밝은 달이 푸른 솔숲 있는 집을 비추는데
何時一笑親　　언제나 가족들과 함께 한번 웃으리.

其三

北闕臨明主　　궁궐에는 밝은 임금님 계시고
高堂有老親　　고당에는 늙은 부모님 계시네.
男兒忠孝外　　남자가 忠孝하는 것 외에
何假顧吾身　　어느 겨를에 내 몸을 보살피리.

其四

31) 箕山叟는 箕山에 은둔한 許由와 巢父를 가리킨다. 이들은 요임금의 청을 거절하고 기산에 머물며 절조를 지켰다. 箕山之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野志雖云定　　야인의 뜻이 비록 정해졌다 하나
君恩安可虛　　임금의 은혜를 어찌 헛되게 하리오?
蒼生今有望　　백성들이 지금에 바라는 바가 있으니
莫愛草間廬　　초가삼간만 사랑하지 말라 하네.

寄聽松(四首)[32]

'聽松'은 박상이 성수침에게 지어준 호이다. 성수침의 집 주변이 소나무로 둘러져 있는 데에 연유해서 명명한 것이다. 松聲, 松屋, 草間廬 등은 성수침의 은자적인 삶을 엿볼 수 있는 시어이다. 「寄聽松(四首)」은 임억령이 성수침에게 은둔생활을 접고 벼슬자리에 나아갈 것을 권유한 시이다. 임억령의 유교적 성향은 매 수에 나타난다.

첫 번째 수에서는 기산의 늙은이들이 요임금이 권유한 임금 자리를 거절한 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는다는 시구나, 순임금의 풍류소리가 솔바람 소리보다 더 듣기 좋다고 묘사한 시구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수에서는 쓸쓸한 노년의 삶을 비유하여 유교적 현실주의를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 내용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수에서는 事君以忠과 事親以孝를 예로 들어 군자의 삶이 충과 효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여 유교의 덕목인 충효에 힘쓸 것을 권유한 내용을 들 수 있다.

네 번째 수에서는 은자적인 삶보다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백성을 돌보는 일이 앞섬을 강조한 내용을 들 수 있다.

「寄聽松(四首)」은 임억령의 유교적 현실주의가 잘 드러난 교유시이다. 강원도 관찰사 재임 시에 인용됐던 기록에서 본다면 조금은 모순된 표현이라 여길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억령은 관리로서 부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단지 기묘사화와 을사사화 등의 주변 상황과 개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백성을 돌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아래의 「寄聽松」에서 논의한다.

「用企村韻送聽松還山」은 임억령이 두 번째 宦路 시기에 성수침에게 보낸 시이다. 이 시에는 임억령이 송순의 운을 써서 坡山 즉, 坡州로 돌아가는 성수침을 보내는 심정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 임억령, 「寄聽松」(四首), 『석천집』 3책, 189면.

寂莫荒村隱少微　　적막하고 한적한 곳에 처사되어[33] 숨으니
蕭條石逕接柴扉　　쓸쓸한 돌길이 사립문에 이어지네.
身同流水世間出　　마음은 유수와 함께 세상으로 나오고
夢作白鷗江上飛　　꿈에 白鷗되어 강을 날고 있네.
山擁客窓雲入座　　산은 객주집을 에워싸고 구름은 자리에 드는데
雨侵書榻葉投幃　　비는 책상을 적시고 나뭇잎은 휘장에 들이치네.
飄然又作投簪計　　표연히 또 벼슬 계획 버려두니
塵土無由染素衣　　흙먼지 연유도 없이 흰 옷을 적시네.

用企村韻送聽松還山[34]

시의 제목은 「기촌의 시에 차운해서 坡山으로 돌아가는 청송을 전송하다」이다. 이 시에서는 성수침의 隱者的 삶을 부러워하며 임억령 자신도 속세에서 벗어나 高潔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少微, 柴扉, 白鷗 등의 시어는 坡山에서 은자적 삶을 지속하고 있는 성수침을 비유한 표현이다.

首聯의 쓸쓸한 돌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사립문이 이어지는데 이곳에는 草堂이 있다. 이곳의 草堂은 파평산 아래의 우계현에 있는 성수침의 초당을 가리킨다. 그곳은 '적막하고 한적한 곳'이며, 성수침이 살고 있는 곳으로 속세와 떨어져 있는 단절의 공간이기에 적막함이 지나쳐서 고요하다. '坡山淸隱'이라는 호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頷聯의 '꿈에 白鷗되어 강을 날고 있네'는 자연과 하나가 된 성수침의 현재 상황을 나타낸 시구이다.

頸聯에는 자연 속에서 동화되어 살고 있는 성수침의 생활이 묘사되어 있다.

尾聯은 벼슬자리에 미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속 사람들이 성수침을 내버려두지 않음을 묘사하였다.

「寄聽松」은 임억령이 두 번째 宦路 시기에 성수침에게 보낸 시이다. 『석천집』 4冊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강원도 관찰사로 재임 시에 성수침에게 보낸 시로 추정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3) 少微는 별 이름이다. 春秋合誠圖에서는 少微星을 處士位라고 하고, 天官占에서는 處士星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숨어 지내는 사람의 뜻이다.
34) 임억령, 「用企村韻送聽松還山」, 『석천집』 3책, 193면.

毒蛇享長年　독이 있는 뱀은 오래도록 살고
苦菜活冬日　쓴 채소는 겨울에도 사네.
人爲萬物靈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賢者宜逢吉　어진 사람은 마땅히 좋은 일 만나야 하네.
如何彼君子　어찌하여 그대와 같은 군자가
一生長抱疾　한 평생을 오래도록 병을 안고 있는가.
昨日見君書　어제 그대의 편지를 보니
書云恒臥室　편지에 이르되 항상 방에 누워있다 하네.
念我食無魚　내 음식에 고기 없을까 염려하여
饋我山鷄一　나에게 산 닭 한 마리를 보내왔네.
子窮反助我　그대는 곤궁하면서도 도리어 나를 도우니
仰感朋情密　우러러 우정 밀접함에 감사하네.
我亦怵風霜　나 또한 바람과 서리를 겁내고
耳又厭啾唧　귀로는 또 재잘거림을 싫어하네.
所以長掩門　때문에 오래도록 대문을 닫고서
養此頑鈍質　이 완악하고 노둔한 자질만을 양성하네.
啓期爲樂三　榮啓期로 인해 삼일 동안 즐거움으로 하였지만[35]
叔夜不堪七　叔夜는 끝내 죽림칠현과 함께 하지 못했네.[36]
已覺軒冕寄　이미 높은 벼슬자리 버리기를 깨달아
常懷山水乞　항상 산수 구걸만 생각했네.
只取一身養　단지 일신의 양성만을 취할 뿐이니
寧嫌五斗屈　편안히 다섯 말 녹봉 때문에 굽히긴 싫네.[37]
此若不可得　이것을 만일 얻지 못하면
歸歟老蓬篳　돌아가리다, 나의 우거진 전원으로.
非無張翰蓴　張翰[38]의 순갱이 없지는 않을 것이고
亦有李衡橘　또한 李衡[39]의 귤이 있으리라.

---

35) "榮啓期一彈 而孔子三日樂感而和." (「主術訓」, 『淮南子』)
36) 叔夜는 중국 삼국시대 魏나라 嵇康(223~262)의 字이다. 혜강은 阮籍(209~263)과 함께 竹林七賢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다. 혜강은 '사마씨정변'으로 인하여 40세에 사형을 당했다.
37) 중국 六朝시대 晉나라의 陶淵明이 五斗米의 祿俸을 받기 위해 상관에게 허리 굽혀 절을 할 수 없다 하여 歸田園했다는 고사에서 취한 말이다.
38) 張翰은 중국 晉나라 吳郡 사람이다. 벼슬을 하다가 고향의 菰菜와 蓴羹을 그리워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只疑海寇侵　　다만 의심하건데 바다의 도적들이 침입하여
此計不得必　　이 계획을 반드시 얻어내지 못할 것을.
常恐死道路　　항상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여
永爲高人咥　　영원히 고사에게 질타를 받았네.
衰年萬事懶　　노쇠한 나이라 만사가 귀찮지만
詩書味如蜜　　시와 문장은 그 맛이 꿀과 같네.
聞君有國語　　듣건대 그대가『國語』를 지니고 있다 하니
歸我以全帙　　나에게 전질을 빌려 주게.
吾當如對君　　내 마땅히 그대를 대하 듯
不汚亦不失　　더럽히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네.
雲伯來傳云　　운백이 와서 전해 말하기를
君病不捨筆　　그대는 병이 들어도 붓을 놓지 않는다 하네.
此雖於藝末　　이것은 비록 예술의 끝이기는 하나
是乃正心術　　이것은 바로 마음을 바로잡는 묘술이네.
其非天與癖　　어찌 하늘이 부여한 천성이 아닐 것인가
如頭垢思櫛　　머리에 때 끼면 빗질을 생각하는 것처럼.
看君簡書畫　　그대의 간결한 글씨와 그림을 보면
遒勁森刀鉍　　굳세고 힘차기가 삼엄한 창과 같네.
我欲乞小帖　　내가 적은 필첩하나 구걸하려 하노니
肯否第未悉　　나의 진심을 허락해 주겠는가.
思爲蓄巾衍　　생각하건대 상자 속에 보관하여
不獨示子姪　　아들과 조카들에게 보여 줄 뿐만 아니네.
應知萬歲後　　아마도 오랜 세월 뒤엔
一字價百鎰　　한 자의 값이 만량은 나가리라.
陳悔不覺蔓　　회포를 늘어놓아 산만함도 잊었으니
微詩莫誚叱　　볼품없는 시이지만 꾸짖지 말게나.

寄聽松[40]

'독이 있는 뱀'과 '쓴 채소'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뱀과 쓴 채소처럼 역경과 고난을 딛고 여러 해를 산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어진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있

39) 李衡은 중국 三國시대 吳나라 사람이다.
40) 임억령,「寄聽松」,『석천집』4책, 206면.

어야 하듯 군자와 같은 성수침에게 늘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데, 성수침은 지병으로 인해 일생이 힘들었음을 임억령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편지에 이르길 성수침은 병상에 있지만 임억령이 고기가 없을까 염려되어 산 닭 한 마리를 보내왔다. 이 시구에는 임억령과 성수침이 상호 간에 서로의 입장을 배려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임억령은 '榮啓期, 叔夜'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 또한 벼슬의 덧없음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했다. 그는 편안한 삶을 영유하기위한 녹봉 때문에 허리 굽히기를 싫어하였다. 임억령은 도연명의 고사를 인용하여 田園에 귀의하여 장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은유적으로 나타내었다. '녹봉'이란 시어를 통하여 임억령이 관직에 재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임억령은 그 누구보다도 그 고향으로 돌아가 일신의 건강을 보살피며 살고자 한 마음을 張翰과 李衡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바다의 도적들로 인하여 자신이 바라는 전원생활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진 않을까 염려하였다. 노쇠한 몸은 만사를 귀찮게 여긴 반면 시와 문장은 늘 곁에 두고 싶어 하였다. 「寄聽松」은 임억령이 재출사한 두 번째 환로 단계에 성수침에게 보낸 교유시로 추정된다. 이 시에는 임억령의 장자적 탈속주의가 드러나 있다.

「寄聽松(四首)」과 「用企村韻送聽松還山」의 시에서는 성수침에게 벼슬자리에 나아가도록 권유하고 있는 내용이 은유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첫 번째 환로 단계에 접어든 시기에 임억령의 성향은 유교적 현실주의에 편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억령은 성수침과 같이 1519년 기묘사화로 낙향했다가 26세에 조부상을 당하고 다시 30세에 문과 급제를 하였다. 첫 번째 宦路 시기의 시작을 1525년 문과 급제시기로 기준 삼으면 임억령의 사상은 유교적 현실주의에 토대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생애에 비추어볼 때 임억령의 사상은 道學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임억령의 사상적 기반이 도학에 있음을 알 수 있는 『寄齋雜記』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어머니 玄氏는 성품이 엄하고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百齡은 그 형 億齡과 함께 朴祥에게 수업하였다. 박상이 억령에게 『莊子』를 가르치며, "너는 반드시 문장가가 되리라."하고, 백령에게 『논어』를 가르치며, "너는 館閣 문장에 능하리라."하였다. 억령은 천성이 소탈하고 또 행실이 얽매이

지 않았으며, 백령은 단정하고 자상하며 잡된 일이 없으므로 그 어머니가 몹시 사랑하며, 자리에 눕고 일어날 때에 백령을 시켜 부축하도록 하였는데 모든 일을 다 마음에 맞게 하였다. 석천에 대해서는 粗率하다고 지목하여 일을 맡기지 않았다.[41]

임억령은 박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린 시절부터 '도학'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임억령의 사상이 1525년 문과 급제 시기를 전후하여 잠시 유교적 현실주의에 의탁한 듯하였지만 을사사화를 전후하여 도학으로 귀의했다 할 수 있다. 요컨대 임억령의 성향은 첫 번째 환로 단계에서는 유교적 현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고, 두 번째 환로 단계에서는 장자적 탈속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申潛

申潛(1491~1554)은 詩書畵에 모두 뛰어났다. 詩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이라 傳稱되는 「探梅圖」[42]와 「花鳥圖」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문집 『高靈世稿續編』과 처남인 玉溪 盧禛[43]이 死後에 쓴 「通政大夫行尙州牧使申公行狀」[44]과 『高靈世稿』를 통해 비교적 상세한 생평을 검토할 수 있다.

신잠은 高靈申氏로서 字는 元亮이고 號는 靈川子 또는 峨嵯山人이다. 1491년 3월에 태어나 7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형 申沆[45]에게 학문을 배웠는데 형이 경서를 가르쳐주면 곧잘 이해하여 弱冠도 되지 않아 문명이 드러났다고 한다.

1513년 23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519년 29세에 조광조가 실시한 賢良科에 등용되어 藝文館檢閱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신

---

41) "母玄氏 性嚴 有五子 百齡與兄億齡 俱受業於朴祥 祥嘗授億齡莊子曰爾必爲文章 授齡論語曰足爲館閣之文 億齡性疎脫且不拘檢束 百齡端詳無雜 母極愛之 枕席臥起 皆令百齡扶掖 事事稱意." (朴東亮, 「寄齋雜記」, 『燃藜室記述』 卷11)

42) 探梅圖는 비단에 옅은 채색으로 그렸으며, 길이가 210.5㎝, 폭이 44㎝로 횡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43) 盧禛(1518~1578)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本貫은 豊川이고 字는 子膺이며 號는 玉溪이다. 함양 출신으로 奇大升, 盧守愼, 金麟厚 등의 학자들과 道義로 교유하였다고 한다. 신잠과는 처남매부간으로 노진의 둘째 누이가 신잠의 둘째 부인이 되었다는 기록이 『玉溪文集』에 보인다. (盧禛, 『玉溪先生文集』, 卷3, 『한국문집총간』 37권, 247면 참조)

44) 노진, 「通政大夫行尙州牧使申公行狀」, 『옥계선생문집』, 『한국문집총간』 37권, 257면.

45) 申沆의 字는 容耳이고, 1490년 14세에 成宗의 첫째 딸 惠淑翁主와 결혼하여 高願尉에 봉해졌다.

잠은 罷榜되어 50여 세까지 변변한 벼슬 한 번 못하고 궁하게 떠도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 그 후 1521년 겨울에 安瑭(1461~1521) 등과 함께 辛巳誣獄에 연루되어 전라도 장흥으로 좌천되어 17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으니 그의 나이 31세였다. 신잠이 유배에서 풀려난 것은 1537년 그의 나이 47세에 장흥에서 양주로 옮겨왔다. 그러나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48세가 되어서 蘇世讓(1486~1562)이 '遠接使'의 일에 도움이 될 만하여 시에 능통한 신잠을 추천하였으나 이미 科制를 혁파했기 때문에 文班에 복직시킬 수 없어 등용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신잠은 문장에 능한 인재로서 여러 차례 추천되었지만 별다른 직책을 받지 못했다.

1538년 49세 가을에 모친상을 당하고, 이후 삼년동안 서울의 아차산 밑에서 여막살이를 하며 삼년동안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그는 그 곁에 집을 지어 생을 마칠 계획을 갖고 산수를 즐기며 자적하는 삶을 살았다.

53세인 1543년 겨울에 사신을 접대하는 일에 추천되어 6품을 받고 司饔院主簿를 지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太仁縣監에 제수되었다. 1549년 임기를 마친 후에는 산수나 즐기려는 뜻으로 江原道 杆城郡으로 부임하였다. 1552년 62세 여름 尙州牧使로 제수 받았으며 상주목사 재임 중이던 1554년 12월 초2일에 큰 병이 들어 2일을 넘기지 못하고 64세 일기로 생을 마쳤다.46)

「次前韻留別靈川」은 임억령이 1516년 진사시에 합격한 이후 1525년 문과에 급제하여 본격적인 宦路 시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귀양 떠나는 신잠에게 보낸 시로 추정된다. 임억령과 신잠의 생애를 통해 짐작컨대, 이들의 교유는 임억령이 진사시에 합격한 무렵에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신잠 역시 1519년 기묘사화로 낙향했다. 신잠은 1513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임억령이 문과에 급제하기 이전인 1521년 신사무옥에 연루되어 전라도 장흥으로 귀양살이를 떠났기 때문에 임억령과 직접적인 교유 관계는 이들이 진사시에 합격할 무렵으로 추정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江邊尋一老	강변에서 한 노인을 찾으니
白髮對靑春	백발이 청춘을 대하네.
賦服可憐子	귀양 가는 가련한 그대여

46) 이재숙, 「靈川子 申潛의 삶과 詩世界 - 幽人의 삶과 意識 變化 樣相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23, 동양한문학회, 368~376면.

行吟憔悴人　　거닐면서 읊조리는 초췌한 사람.
江山應助筆　　강산이 아마도 붓을 도우리니
天地豈私貧　　천지가 어찌 사사로이 빈궁케 하랴.
但願長相憶　　다만 오래 서로 생각하기 원하노니
臨歧難具陳　　갈림길에서 모두 말하기 어려워라.

次前韻留別靈川[47]

시의 제목은 「前韻에 차운하여 靈川과 작별하다」이다. 이 시는 임억령이 신잠과의 작별을 아쉬워하는 심정을 담아 귀양 중인 신잠에게 보낸 작품일 것이다. 임억령은 강변의 노인을 신잠에 투영하여 신잠의 궁핍한 생활이 잠시 동안 지속될 뿐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임억령의 노장사상이 드러난 시이다.

「拜酬靈川(十首)」은 임억령이 첫 번째 宦路 시기에 귀양 중인 신잠에게 보낸 시이다. 10수 중 네 번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睡鄉元與醉鄉隣　　睡鄉이 원래 醉鄉과 이웃이라서
兩地中間出入頻　　두 곳을 중간에 두고 출입을 자주 하네.
合眼無分眞有味　　눈을 감으니 분별이 없어 진정으로 맛을 지니고 있으나
墜車不死解全神　　수레에서 떨어져 죽진 않았지만 온전한 정신에서 벗어났네.
翩翩一榻寧殊蝶　　일탑에서 펄펄 나니 어찌 나비와 다르리오
拍拍盈懷摠是春　　탁탁 가슴에 채워 넣은 것이 모두 봄이네.
自得道來多小快　　스스로 도를 얻으니 얼마나 상쾌한가
不知我者謂興呻　　나를 모르는 이들은 신음한다 이르네.

拜酬靈川(十首) 其四[48]

이 시의 제목은 「영천에게 절하여 수작하다」이다. 임억령의 장자적 삶을 엿볼 수 있는 시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睡鄉'은 '잠 잘 때, 꿈나라'를 의미한다. 또한 '醉鄉'은 '술이 거나하여 즐기는 別天地'를 의미한다. 수향과 취향은 닮아 있다. 꿈속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으며,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도 '수향' 때와 비슷하다. '수향'이나 '취향'은 理性이 적은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수향이라면 내 의지와 상

47) 임억령, 「次前韻留別靈川」, 『석천집』 1책, 76면.
48) 임억령, 「拜酬靈川」(十首) 其四, 『석천집』 1책, 92면.

관없는 상태이며 취향도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시점이다. 그리하여 '수향과 취향'은 이웃이라고 말하면서, '두 곳을 중간에 두고서 출입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꿈속에서 莊周가 나비가 되어서는 내가 나비를 쫓는 것인지, 나비가 나를 쫓는 것인지를 모르듯이, 수향의 自我는 원하는 모든 世界와 일체가 될 수 있다.[49] 이렇듯 현실과는 조금 다르지만 '수향과 취향'의 모습은 어떻게 본다면 莊子가 추구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題元亮墨竹簇子」 또한 임억령이 첫 번째 宦路 시기에 귀양 중인 신잠에게 보낸 시로 추정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今代爲詞伯	지금 세상에 詞伯이 되었으니
前身是畵師	前身은 아마도 畵師였으리라.
墻東揮健筆	담장 동쪽에서[50] 健筆을 휘두르니
天末起涼颸	하늘 끝에서 서늘한 바람이 이네.
懈谷霜埋節	懈谷[51]에 서리는 마디를 묻고
湘江血染枝	湘江[52]에 피눈물은 가지에 물들었네.
從來非俗物	본래 俗物이 아니기에
無肉亦忘飢	肉고기 없이도 굶주림을 잊네.

題元亮墨竹-簇子[53]

이 시의 제목은 「원량의 묵죽에 쓰다」이다. 이 시는 신잠이 詩書畵에 능통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작품이다. '지금 세상에는 문장의 으뜸이 되었으니 前生에는 그림 그리는 것을 業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시구를 통하여 신잠이 시서화에 능통했음을 알 수 있다. 전생에 畵師라고 하는 것은 現生에서도 그의 그림 실력이 뛰어났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신잠은 실제로 조선 중기의 詩書畵에 모두 뛰어난 사람이었다.

---

49) 최한선, 「石川 林億齡 詩文學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132면.

50) 墻東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市井에서 은자처럼 사는 것을 말한다. 東漢의 王君公이 난리 통에도 시내를 떠나지 않고 소를 매매하는 거간꾼 노릇을 하면서 숨어 살자, 사람들이 "避世墻東王君公"이라고 일컬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逸民傳」 逢萌, 『後漢書』)

51) 懈谷은 皇帝의 신하 伶倫이 대나무를 베어 樂器를 만든 곳이다.

52) 湘江은 舜의 二妃가 舜이 蒼梧에서 죽자 바라보며 피눈물을 뿌려 대나무가 斑竹이 되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53) 임억령, 「題元亮墨竹-簇子」, 『석천집』 1책, 100면.

「別元亮(必靈川赴上洛時也)」은 임억령이 두 번째 宦路 시기에 신잠에게 보낸 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雲埋加智洞	구름은 加智洞을 덮었는데
木拱訥參墳	아름드리나무는 무덤가에 말없이 늘어서 있네.
風月嗟無主	아, 풍월은 주인이 없는데
聲名獨有君	명예는 오직 그대에게 있네.
如何海上隔	어찌하여 바다를 사이에 두고
又作嶺南分	또한 영남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는가?
客思如飛絮	나그네의 마음은 버들꽃 가루처럼[54]
隨風天外紛	바람 따라 멀리 흩어지네.

別元亮-必靈川赴上洛[55]時也[56]

이 시의 제목은 「원량과 이별하며」이다. 부제 '영천이 한양에 부임할 때를 기약하며'에 나타난 바와 같이 「別元亮」은 신잠과의 이별을 아쉬워함과 동시에 신잠이 한양에 부임하기를 바라는 임억령의 심정이 잘 드러난 시이다.

신잠의 부임을 바라는 임억령의 마음이 나타난 시구는 아래와 같다. '아, 풍월은 주인이 없는데'의 '주인이 없다'는 표현은 바로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다. '명예는 오직 그대에게 있네'라는 표현 또한 명예로써 신잠이 다시 벼슬에 부임할 것이라는 임억령의 믿음이 반영된 시구이다. 임억령은 신잠이 벼슬에 다시 등용될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신잠과 이별하는 것이 슬프지만은 않다고 표현한 것이다.

「次前韻留別靈川」, 「題元亮墨竹-簇子」, 「拜酬靈川(十首)」 其四는 장자적 탈속주의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別元亮-必靈川赴上洛時也」에서는 유교적 현실주의 경향이 나타난다.

54) 飛絮는 '봄철에 바람에 나부끼는 솜과 같은 버들 꽃 가루'를 의미한다.
55) 上洛은 '上京'의 다른 표현으로 수도인 漢陽을 일컫는 말이다.
56) 임억령, 「別元亮-必靈川赴上洛時也」, 『석천집』 3책, 189면.

(3) 崔演

崔演(1503~1549)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本貫은 江陵이고, 字는 演之이며, 號는 艮齋이다. 1519년 司馬試를 거쳐 1525년 式年文科에 乙科로 급제하였다. 1638년 문장에 능하다고 하여 명나라 사신을 맞는 '遠接使'의 종사관으로 활약하였다. 1546년 吏曹參判에 보임되고, 兵曹參判을 역임하였다. 1549년 冬至使로 명나라에 가던 중 평양에 이르러 병사하였다. 시문에 능하여 국가에서 주관하는 敎書·冊文을 주로 담당하였고, 御製詩에 항상 수석 또는 차석을 차지하여 왕의 총애를 받았다. 左贊成 겸 大提學에 追贈되었으며, 諡號는 文襄이다.

임억령과 최연의 교유는 임억령이 문과에 급제한 1525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애석하게도 최연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최연과 교유한 시는 모두 첫 번째 宦路 시기에 한정되어 있다. 「與演之子潤遊江」은 임억령이 첫 번째 宦路 시기에 최연에게 보낸 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印招我友三	내가 나의 벗 세 사람을 불러들여
逸興孤舟托	솟아나는 흥취를 외로운 배에 의탁하네.
江風與山月	강에 부는 바람과 산위에 떠오른 달을
吾與子共樂	나는 그대들과 함께 즐기네.
吟詩健筆揮	시를 읊으며 붓을 굳세게 휘두르고
佐酒嘉瓜削	술안주로 좋은 오이를 깎아내네.
盖寺藕花開	절간을 뒤덮은 연꽃은 피어있는데
搖村柳條弱	마을을 흔드는 버들가지는 연약하네.
徐徐理歸棹	천천히 돌아가는 노를 젓는데
孤烟生遠壑	외로운 연기가 먼 산골에 이네.
一杯復一杯	한 잔 들고 다시 한 잔 기울여도
世務明朝各	세상의 힘쓰는 일은 내일아침에 각자 하네.

與演之子潤遊江[57]

이 시의 제목은 「演之·子潤과 더불어 강에 놀러가서」이다. 임억령이 崔演之와

57) 임억령, 「與演之子潤遊江」, 『석천집』 1책, 79면.

李子潤과 함께 강가에 불어오는 바람과 산위에 떠오른 달을 보며 지은 시이다. 李子潤은 이름이 瑛(1501~1558)이다. 즉 이 시는 임억령과 崔演·李瑛 함께 벼슬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자연에 동화된 임억령의 심정이 잘 반영된 작품으로 '술안주로 좋은 오이를 깎아 내네'라는 표현은 이들의 安貧樂道한 삶이 투영되어 있다. '천천히 돌아가는 노를 젓는데'라는 표현은 자연 속에 안주하려는 임억령의 의도가 나타나 있다. 이처럼 지금은 비록 벼슬살이에 있지만, 언젠가는 자연 속으로 돌아가 여유를 즐기고 싶은 심정을 잘 표현하였다.

「次半山韻贈演之約與賞春彰義門外」 또한 임억령이 첫 번째 宦路 시기에 최연에게 보낸 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遮日岩前水石奇	遮日岩의 앞에 水石이 기이하여
常懷春服詠而歸	항상 春服을 입고 읊조리며 돌아갈 것을 생각하네.
衰年忽被微官縛	노쇠한 나이에 갑자기 미천한 벼슬에 묶여
殘夢空尋細草菲	어렴풋이 꿈에 공연히 갓 싹튼 풀들을 찾네.
身後文章將底用	죽은 뒤의 문장이 어찌 소용 있겠는가
生前杯酒且須揮	생전의 술잔이나 우선 들고 보네.
思君咫尺如千里	그대를 생각하니 지척이 천 리와 같은데
風雨昏昏滿四圻	비바람으로 어둑어둑함이 사방에 가득하네.

次半山韻贈演之約與賞春彰義門外[58]

시의 제목은 「반산의 시를 차운해서 최연에게 보내서 함께 창의문 밖에서 봄 구경을 하자고 약속을 하다」이다. 반산은 宋나라 王安石의 호이다. 이 시에는 임억령의 '無爲自然'이 비유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즉 임억령의 노장 사상이 그대로 형상화된 작품이다. 임억령이 최연에게 죽은 뒤에는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으니 지금 당장 술 한 잔 하자고 한 표현이나 함께 봄 경치를 즐기면서 술 한 잔 할 것을 권유한 표현은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단순하게 인생이 덧없으니 그저 즐기자는 것이 아니다.

최연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임억령이 내비친 의중이다. '비바람으로 어둑어둑

58) 임억령, 「次半山韻贈演之約與賞春彰義門外」, 『석천집』 1책, 86면.

함이 사방에 가득하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최연에게 닥친 불행을 함께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멀리서나마 술로써 슬픔을 달래고자 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봄 구경을 하면서 술 한 잔 하자고 시를 지어 보내며 약속을 정하자고 하는 것이다. 힘든 시기의 친구에게 힘내고 여유를 가지라고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힘든 시기의 친구에게 위로의 말보다 자연의 경치와 더불어 시름을 달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아 임억령의 벗을 생각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贈演之」 역시 임억령이 첫 번째 宦路 시기에 최연에게 보낸 시이다. 최연의 생애로 미루어 보아, 이 시는 1545년 임억령이 귀향하기 전에 호당에 있으면서 최연에게 보낸 시로 추정된다. 임억령은 함께 교유했던 벗이 곁에 없어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달래줄 이가 필요하다는 심정을 비유적으로 담아 나타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蕭條客思雨中深	쓸쓸한 나그네의 생각은 빗속에 깊어지는데
座見栖鴉已滿林	앉아서 보니 갈까마귀들 이미 숲에 가득하네.
萬里病身寬帶服	만 리 길에 병든 몸의 허리띠가 느슨해지는데
三年離恨滿琴心	삼 년간 이별의 한은 거문고 곡조로 가득하네.
非賢豈合銅樓側	현인이 아닌데 어찌 銅樓의 곁에 합당하겠는가
多懶宜遊鍛樹陰	매우 게을러 마땅히 놀며 그늘에서 쇠나 두드리니.
携手欲同觀野外	손을 끌고 함께 야외로 놀러 가고자 하는데
湖堂新釀漲黃金	湖堂에 새로 빚은 술 황금주가 철철 넘쳐나네.

贈演之[59]

시의 제목은 「연지에게 주다」이다. 이 시는 임억령이 최연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한 작품이다. 임억령은 스스로를 '쓸쓸한 나그네'라고 표현하여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최연에게 토로하였다. 그뿐 아니라 '쓸쓸한 나그네의 생각은 빗속에 깊어지는데'라는 표현이나 '앉아서 보니 갈까마귀들이 이미 숲에 가득히 둥지를 틀었네'라는 표현 또한 임억령의 외로운 처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만 리의 병든 몸의 허리띠가 느슨해지는데'라는 표현과 '삼년간 이별의 한은 거문고에 가득하네'라는 표현 역시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비유한 것이다. '손을 잡고 함께 야외로 놀러 가고자

59) 임억령, 「贈演之」, 『석천집』 1책, 87면. 이 시에는 임억령이 다음과 같은 주를 붙였다. "演之가 書堂에 술을 빚어놓고 기다리므로 그렇게 말했다. 黃金은 술 이름이다.(演之在書堂釀酒以待故云黃金酒名)"

하는데'라는 표현을 빌려 최연과 함께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심정을 나타냈다. '湖堂에 새로 빚은 황금주가 철철 넘쳐나네'라는 표현 역시 최연으로 하여금 하루 빨리 자신을 찾아와 자신의 외로움을 술로써 달래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즉 落月屋梁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謝演之啓昭餉松酒」 역시 임억령이 첫 번째 宦路 시기에 최연에게 보낸 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湖上新醪一瓮雲	湖上의 새 술 한 동이에서 구름이 이는데
爲憐衰病遠投分	병으로 쇠약해진 몸을 가련하게 여겨 멀리서 나누어 주었네.
霞光瀲瀲渾家駭	노을빛이 짙게 이니 온 집안이 놀라고
松氣薰薰並舍聞	소나무 기운이 훈훈하게 퍼지니 이웃집까지 풍기네.
協似君臣初際會	마음이 하나 됨이 군신이 처음 만났을 때와 같고
和如天地乍氤氳	화평함이 천지가 갑자기 기운이 성한 것과 같네.
平生胸臆無窮事	평생 동안 가슴 속에 무궁한 일들이
痛飮如今快解紛	통쾌하게 마시니 이제야 흔쾌히 풀린 듯하네.

謝演之啓昭餉松酒[60]

이 시의 제목은 「최연과 엄흔이 松酒를 보내준 것을 사례하다」이다. 송주를 만들어서 선물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 있다. 술동이에 '구름이 인다'라는 것은 술이 맛있게 익어서 이제 마실 수 있는 정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소나무 기운이 薰薰하게 퍼지니 이웃집까지 풍기네'라는 것은 '松酒'의 냄새가 薰薰하게 퍼져서 이웃집까지 풍긴 정취를 나타낸 것이다. 소나무의 은은한 솔잎으로 만든 송주의 향기는 최고일 것이다. 새 송주를 마시는 긴장된 마음을 처음 임금을 알현했을 때에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다.

「入直玉堂次退之韻呈演之(十三首)」 역시 임억령이 첫 번째 宦路 시기에 최연에게 보낸 시이다. 13수 중 두 번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病頰如今已退紅	병색 얼굴 이제 이미 붉은 빛이 사라지더니
靑於松鶴瘦於節	송학보다 푸르고 지팡이보다 파리하네.
琴詩酒裏多生癖	거문고와 시와 술에 빠져 모두 병이 생겼으니

60) 임억령, 「謝演之啓昭餉松酒」, 『석천집』 1책, 89면.

雪月花前萬事慵　　눈과 달과 꽃 앞에서 모든 일에 게으름 피우네.
斥鷃豈能交彩鳳　　뱁새가 어찌 봉황과 사귈 수 있겠는가
寸莛何以發洪鍾　　짧은 종채로 어떻게 큰 종을 울리겠는가.
細思元白眞相似　　가만히 생각하니 元結과 白居易는 진정 서로 닮아
休戚窮通事事同　　안락과 근심 걱정 깊은 생각 일마다 한 가지라네.

入直玉堂次退之韻呈演之(十三首) 其二[61]

이 시의 제목은 「玉堂에 入直하여 退之(韓愈)의 시를 차운하여 崔演之에게 주다」이다. 병든 얼굴에 이제 이미 붉은 빛이 사라진 거 같고, 송학보다 푸르고 지팡이보다 파리한 몰골이라고 하여 임억령은 자신이 병색이 짙음은 頷聯에서 말한 것처럼 거문고에 빠져 있고 시에 몰두하고 술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언명한다. 거기다가 눈과 달과 꽃과 같이 아름다운 것을 앞에 두고도 일상이 게으름으로 가득하다고 하였다. 그것이 바로 임억령을 병들게 한 것이다.

頸聯에서는 임억령 자신을 '뱁새와 짧은 종채'로, 최연을 '봉황과 큰 종'으로 비유하여 최연을 칭찬하고 있다. 尾聯에서는 임억령은 자신과 최연을 元結과 白居易에 빗대고 매사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한다고 하였다. 바로 임억령은 최연을 知己로 생각하고 있다.

이외에도 「與演之子潤遊江」, 「次半山韻贈演之約與賞春彰義門外」, 「贈演之(崔演)」, 「謝演之啓昭餉松酒」, 「入直玉堂次退之韻呈演之(十三首)」 其二수는 미미하게나마 장자적 탈속주의를 엿볼 수 있다.

(4) 嚴昕

嚴昕(1508~1553)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본관은 寧越이고 字는 啓昭이며 號는 十省堂이다. 1525년에 生員이 되고, 1528년 式年文科에 甲科로 급제하여 弘文館正字에 임명된 뒤 검열을 거쳐 湖堂에 들어갔다. 그 뒤 副修撰·修撰·典翰·吏曹佐郎·舍人 등을 역임하고, 1530년에는 지방관의 비행을 적발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되었다. 1531년에는 言路의 개방과 言官의 탄압 중지 등을 건의하였다. 1541년 弘文館

61) 임억령, 「入直玉堂次退之韻呈演之」(十三首) 其二, 『석천집』 1책, 93면.

典翰으로 있을 때 臺諫이 대신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署經을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를 비판하였다. 詩文에 능하여 시조 1수가 『歌曲源流』에 전하며, 遺著인 『十省堂集』 1권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임억령과 엄흔의 교유 또한 임억령이 문과에 급제한 1525년 무렵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次啓昭韻(四首)」은 임억령이 첫 번째 宦路 시기에 엄흔에게 보낸 시이다. 이 시의 제목은 「계소의 운을 차운하여」이다. 임억령은 엄흔의 시에 사용된 운자를 차용하여 관직에 등용되었으나 자신의 심정을 교유할 친구가 없는 심정을 담아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閑居默默似參寥	한가히 거하며 말이 없으니 參寥(參禪)를 한 듯하여
酒伴詩徒久廢招	술친구 시친구들 부르지 않은 지 오래네.
雪月精神看靜夜	雪月의 정신을 고요한 밤에 보고
雲山氣色對淸朝	雲山의 기색을 맑은 아침에 보네.
君如奇寶焉終棄	그대는 기이한 보물과 같으니 어찌 끝내 버리리
我似枯桑不受條	나는 마른 뽕나무 같아 가지치기를 받지 않네.
老去方知閑意味	늙어 가매 바야흐로 한가한 맛을 알았으니
歸與欲效劍南樵	돌아가서 陸劍南(名은 遊宋詩人)의 나무함을 본받고자 하네.

次啓昭韻(四首) 其二[62]

「계소의 운을 차운하여」의 2수는 詩友할 벗이 없음을 아쉬워하는 심정이 반영된 시이다. 한가하게 살면서 참선하듯이 술친구도 시친구도 부르지 않은 지 오래다. 조금은 한가하게 살면서 친구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 조금 서운하지만 밤에는 달을 보고 아침에는 구름 낀 산을 보면서 적응을 한 것이다. 엄흔은 '기이한 보배'와 같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임억령은 엄흔과 달리 이미 마른 뽕나무 신세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이미 마른 뽕나무는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돌아가서 나무하는 것을 배워서 이제 완전히 자연과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萬人奔走一身廖	萬人이 분주한데 내 한 몸 적적하고
夜月窺簾不待招	한밤중 달은 주렴을 엿보고 부르기를 기다리지 않네.

62) 임억령, 「次啓昭韻」(四首) 其二, 『석천집』 1책, 79면.

詩爲陶鎔低唱夜　　시는 다듬기 위해 밤에 나직이 읊조리고
酒因康濟穩傾朝　　술은 건강을 다스리기 위해 아침에 평온하게 기울이네.
常驚霜髮三千丈　　항상 서리 빛 머리카락 三千丈에 놀라고
每憶川松一萬條　　매양 물가의 소나무 일만 그루 생각하네.
自古知音難邂逅　　예로부터 知音은 만나기 어려우니
枯桐誰識困薪樵　　거문고 땔감 되어 곤욕 당할 줄 누가 알리오.

次啓昭韻(四首) 其三[63]

「계소의 운을 차운하여」의 3수 역시 임억령의 외로운 심정이 반영된 시이다. 萬人은 一身의 榮達에 분주한데 나 자신만 고요하다고 하는 데서 처해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 혼자만 고요하게 있는 나는 어떻게 보면 영달을 위해 노력하는 만인들이 부러운 것이다. 백발이 三千丈이나 된 백발의 노인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많이 흐름에 놀랐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있는 나는 소나무가 만 그루나 있는 고향의 시냇가가 그리움으로 다가온 것이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은 鍾子期의 거문고 소리를 알아주었던 伯牙와 같은 사람이 없으며, 마른 오동나무가 훌륭한 거문고의 재목인 줄 모르고 땔감으로써 곤혹을 당하고 있던 중 그것을 알아본 蔡邕(132~192)[64]과 같은 인물이 자기 주변에 없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인물이 나타나기를 바란 것이다.

爲客佳辰獨寂廖　　좋은 날에 나그네 신세 홀로 적적하여
瓮間聊與麴生招　　동이 속의 술이나 불러다가 벗을 삼네.
少時被目藏詩酒　　젊었을 때에는 주목을 받아 시주에 숨었고
近日蒙呼隱市朝　　근일에는 부름을 받아들여 市朝에 숨어 있네.
默默思親家萬里　　묵묵히 만 리 밖의 어버이 생각하니
悠悠伏枕淚雙條　　유유히 베개에 엎드리자 눈물 두 줄기 흐르네.
不如歸去田園老　　전원으로 돌아가서 늙어감만 못하리니
背負朝陽座候樵　　아침볕 등에 쪼이며 나무해오기나 기다려야지.

次啓昭韻(四首) 其四[65]

---

63) 임억령, 「次啓昭韻」(四首) 其三, 『석천집』 1책, 79면.
64) 蔡邕(132~192)은 중국 後漢의 인물로 字는 伯喈이다. 博學多才하고 辭章과 術數와 天文을 좋아 하였으며 音律에 정통하고 書法에도 뛰어났으며, 飛白書를 창시하였다. 그와 그의 아내 趙遲娘을 주인공인 高明이 지은 『琵琶記』가 유명하다.

「계소의 운을 차운하여」의 4수 역시 임억령의 외로운 심정이 담긴 시이다. 임억령은 젊은 시절에 宦路에 나아가 있으면서 佳節 즉 명절을 되었는데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해 술동이의 술을 벗 삼고 있다. 벼슬이란 얽매임 속에서 부모와 형제 곁을 떠나 만 리 밖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눈물이 흐른다. 그러면서 田園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고, 전원으로 돌아가서는 땔감 나무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현재의 나그네 생활보다 아침볕 등에 지고 나무를 해오는 것이 기다려지는 마음은 어떻게 본다면 현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표현하고 있다. 榮達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너무 힘들어 전원행을 결정한 것이다.

「復用深韻呈啓昭(三首)」도 임억령이 첫 번째 宦路 시기에 엄흔에게 보낸 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昭代掄才用意深	밝은 시대에 인재를 가리니 마음 씀이 깊어
正如樑棟養山林	바로 들보감과 같이 산림에서 길러지네.
鏤氷工巧徒傷性	얼음 조각 공교하지만 다만 본성만 상하고
綴露文章枉費心	이슬을 엮은 문장은 부질없이 애만 쓰네.
吾輩各須勤道藝	우리들이 제각기 道藝에 힘써야 하는데
聖人猶有惜光陰	성인이 오히려 광음을 아꼈네.
地高正好開書卷	지경이 높으니 책을 펼치기에 딱 좋고
曾是祗園側布金	일찍이 이 전원 곁이 불당이었네.

復用深韻呈啓昭(三首) 其一[66]

시의 제목은 「深韻을 써서 엄흔에게 주다」이다. 국가에서 인재를 가려 쓰니 산림에서 자라는 들보와 같이 자신도 산림에 우거하여 공부하고자 함을 首聯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얼음 조각이 얼음이란 본성을 상하게 한 것처럼 주옥같은 문장에만 힘을 기울어야 함을 탄식하고 있다. 頸聯에서 우리들이 힘쓰는 것은 성인들이 말하는 도학이 아니라 道藝의 재주만을 기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尾聯에서 임억령은 자신이 공부하는 곳이 山林이라 재목감을 기르기 좋은 곳이

65) 임억령, 「次啓昭韻」(四首) 其四, 『석천집』 1책, 79면.
66) 임억령, 「復用深韻呈啓昭」(三首) 其一, 『석천집』 1책, 89면. 이 시에는 임억령이 다음과 같은 주를 붙였다. "書堂은 月松庵의 옛 터이다.(書堂月松庵遺基)"

라고 하는 것을 보아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당 곁에 布金이라 하였는데, 포금은 '施主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찰'이다. 바로 서당과 사찰은 모두 성인의 道를 추구하는 곳이므로 임억령이 추구하는 것 또한 성인의 도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 형상화하였다.

「次啓昭韻(四首)」 其二와 其三에서는 장자적 탈속주의가 드러나며, 「次啓昭韻(四首)」 其四에서는 유교적 현실주의와의 괴리감이 드러난다. 「復用深韻呈啓昭(三首)」 其一에는 임억령이 불교의 沙門들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주변 환경의 요인이 잘 나타나 있다.

이상으로 宦路시기의 교유시를 살펴보았다. 임억령의 宦路 시기는 괴로운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다. 이것은 본인 뿐 아니라 임억령이 관료로 있을 시기의 백성들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임억령은 환로의 생활을 계속 했다. 「寄聽松」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출사한 시기의 宦路의 생활은 자신과 맞지 않는 宦路 생활이었지만 분명 임억령은 현실지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부족한 관료로서의 자신과 그런 자신 때문에 힘든 백성들을 보면서 그도 괴로웠을 것이다. 그 시기를 같이 했던 사람들과의 교유시가 힘든 임억령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寄聽松(四首)」 등의 교유시에는 宦路에 나아가지 않고 지내던 성수침에게 관직에 나아갈 것을 권유하는 임억령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는 임억령의 유교적 성향의 반영이다.

2) 星山에서의 交遊詩

星山의 시기는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출사 이전의 시기이다. 임억령이 1525년(30세) 문과급제를 하기 이전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주로 고향인 海南과 星山의 주변 고을을 향유하였다. 다음은 1545년(50세)부터 1552년(57세)까지이다. 1545년 임억령이 금산군수를 사직하고 星山으로 귀향한 시기로 1552년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끝으로 星山으로 다시 귀향한 시기를 들 수 있다. 이 시기는 임억령이 62세의 나이로 담양부사에 부임된 시기(1557년)부터 임억령이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1568년)까지이다.

성산의 시기 또한 환로의 시기와 교차한다. '**星山** → (출사) 환로 → **(歸鄕) 星山** → (재출사) 환로 → **(再歸鄕) 星山**' 순이다. 성산 단계는 고향인 海南과 성산의 주

변 고을을 향유한 시기이다. 성산으로 귀향한 단계는 관직에서 물러나 성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시기이다. 성산으로 다시 귀향한 단계는 성산과 그 주변 고을을 중심으로 활동한 시기이다. 담양부사에 재직한 시기는 엄밀히 말해 환로의 두 번째 단계에 속하지만 성산에 머문 시기이므로 성산에 귀납한다.

星山이라는 곳은 鳴鳳山의 산록에 있다. 지난날에는 昌平에 속했으나, 지금은 행정 구역상 남면 芝谷이다.[67] 임억령이 1557년 62세 담양부사로 부임하여 3년을 보낸 뒤 벼슬에서 물러나 星山에 자리를 잡았다. 이때에 임억령이 건립한 정자가 당시는 조촐한 草堂에 불과했으나, 중수를 거듭하여 지금의 息影亭이 된 것이다.

임억령이 星山에서 살았던 곳이 바로 松江別墅이다. 별서라는 것은 오늘 날의 별장과 같은 임시 거처지이다. 송강별서는 松江의 주변에 있는 임억령의 거처인 것이다. 이 거처는 임억령의 息影亭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68] 「憶松江別墅」는 임억령의 星山에서 생활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綠野多紅稻	푸른 들녘에는 붉은 벼가 많고
淸江刱白魚	맑은 강물에는 하얀 고기떼가 가득하네.
秋來愁疾病	가을이 되어 병고로 시름하니
老去戀樵漁	늙을수록 나무하고 고기 잡던 시절이 그립네.
松下期垂釣	소나무 밑에서 낚시질 할 것을 기약했었고
山崖已卜居	산기슭에 이미 살 곳을 점쳐서 정했었네.
歲時歸計決	歲時에 돌아갈 계획이 결정되었으니
童僕汝巾車[69]	아이야 너는 타고 갈 수레나 챙겨라.

憶松江別墅[70]

「憶松江別墅」는 임억령이 송강별서를 생각하며 강진에서 지은 시이다. 임억령은 이 시를 통해 松江에서의 낚시질과 棲霞堂[71]에서 거처한 정황을 드러냈다. 이것은

67) 정익섭, 「星山別曲의 再考」, 『조종업박사 화갑기념논총간행회』, 1990, 7면.
68) 김성기, 「石川 林億齡과 星山洞」, 『石川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선출판 라이프, 1996, 172~173면.
69) 巾車는 베로 휘장을 친 수레이다. 陶淵明의 「歸去來兮辭」에 '혹은 전거를 명한다(或命巾車)'라고 했다.
70) 임억령, 「憶松江別墅」, 『석천집』 2책, 136면.
71) 棲霞堂이 金成遠의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것은 김성원의 雅號가 棲霞堂이고, 아호인 서하당을 따서 자신의 堂號라고 지었다면 옳은 생각이다. 그러나 서하당은 당초에 임억령이 창건했고 그 당호를 서하당으로 지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곧, 임억령이 1545년 乙巳士禍 직후 落南(星山으로 귀향)해서 別墅를 창축하고 서하당으로 그 당호를 짓고 살아오다가 뒷날 해남으로 떠나면서 사위인 김성원에게 물려주고,

단적으로 말하자면, 임억령이 星山에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星山에 터를 닦아 집을 짓고 살면서 생활했던 곳이라는 증거이다. 사실상 星山은 임억령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므로 그를 星山人으로 칭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는 星山은 그의 제2의 연고지이기 때문이다.[72]

강원도 관찰사직을 遞任당하고 금강산을 둘러 서울에 온 임억령은 현실의 시름과 자유로의 동경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1557년 62세 되던 해에 담양부사에 제수되면서 그의 시세계는 지금까지의 불안한 양상에서 벗어나 風流와 閑淡이 넘치는 詩情을 쏟아내게 된다. 담양부사를 맡고 나서야 여유를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詩友가 많았기 때문이다. 시우가 많게 된 문화적 배경은 溪山風流를 형성한 당시 담양 지역의 풍토 때문이다. 이러한 풍토로 인하여 성산을 중심으로 많은 시인묵객들이 서로 詩情을 交驩하였다. 이는 유독 詩豪로 자처하며 상대를 찾곤 했던 임억령의 기호에 맞아떨어졌다.

둘째, 담양이 고향인 해남과 그다지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진, 영암, 나주, 담양 등지를 遍踏했던 경험이 있었듯이 담양을 격리된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사위인 김성원이 星山洞을 찾은 임억령을 항상 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담양은 아득히 격리된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안착 할 수 있었던 곳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셋째, 임억령은 더 이상 다른 무엇을 동경하고 있기에는 그 자신이 이미 노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평생 내면에서의 아우성과 갈망을 안고 살았으되, 이제는 그를 환대하는 담양에서 안락한 노년을 맞이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의 근거는, 1559년 64세 나이로 棄官歸鄕했다가 1561년 이후 다시 담양 성산동에 은거하며 1568년 73세의 일기로 卒하기까지 이곳에서 만년을 보내게 된 것에 근거한 것이다.[73]

그렇기 때문에 성산은 그의 교유의 하나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시를 짓고 교유를 하였다. 이 시기에 임억령과 교유 관계를 형성한 대표적 인물은 宋純(1493~1582)과 金允悌(1501~1572)이다.

김성원이 스승이면서 장인인 임억령의 서하당이란 당호를 자신의 것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김성기, 앞의 논문, 176면)

72) 김성기, 같은 논문, 172면.

73) 김동준, 「石川 林億齡의 生涯와 詩世界」, 『한국한시작가연구』 4, 한국한시학회, 1999, 426~427면.

(1) 宋純

宋純(1493~1583)의 本貫은 新平이며, 字는 守初 또는 誠之이고, 號는 企村 또는 俛仰이다. 1519년 別試文科에 乙科로 及第하였다. 1533년 金安老가 권세를 잡자, 귀향하여 면앙정을 짓고 시를 읊으며 지냈다. 1537년 김안로가 賜死된 뒤 5일 만에 弘文館副應敎에 제수되고, 다시 司憲府執義에 올랐다. 그 뒤 경상도 觀察使·司諫院大司諫 등의 요직을 거쳐 50세 되던 해인 1542년 尹元衡과 黃憲 등에 의하여 全羅道觀察使로 被黜되었다. 1550년에 大司憲·吏曹參判이 되었으나, 陳福昌과 李芑 등에 의하여 邪論을 편다는 죄목으로 충청도 서천으로 귀양 갔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관직생활 50여년 만에 은퇴하였다.

俛仰亭歌壇의 창설자이며 江湖歌道의 선구자이다. 송순은 성격이 너그럽고 후하였으며, 특히 음률에 밝아 가야금을 잘 타고 풍류를 아는 호기로운 재상으로 일컬어졌다. 「次俛仰亭韻」은 임억령이 두 번째 귀향시기에 星山에서 송순에게 보낸 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人間得失孰司幽	인간의 얻고 잃음 누구라 그윽한 곳 엿보리오
壯髮蕭蕭雪滿頭	억센 머리카락 찰랑찰랑하더니 백발 가득한데.
影入盃中江月細	술잔에 그림자 비치니 강에 뜬 달빛 희미한데
凉生枕上竹陰稠	베개 맡에 찬 기운 서리니 대나무 그늘 우거졌네.
呼兒引手披秦燼	아이 불러 손을 끌고 낡은 책을 펼치다가
召容垂簾對奕秋	조용히 발을 드리우고 바둑을 대하네.
安得身爲天外鶴	어찌 이 몸이 하늘가의 학이 되어
墮君亭下說窮愁	면앙정 아래로 날아가 궁곤한 수심 하소연 할꼬.

次俛仰亭韻[74]

시의 제목은 「면앙정의 시에 차운하여」이다. 이 시는 임억령이 귀향하여 면앙정에 머물고 있는 송순에게 보낸 작품이다. 인간이 얻고 잃음을 누가 결정하는지를 물음과 동시에 억세던 머리카락에 백발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표현하고 있다. 인생의 허무함을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술잔에 달빛의

74) 임억령, 「次俛仰亭韻」, 『석천집』 3책, 187면.

그림자가 비치는데 그 모습과 가을에 발을 드리우고 조용히 바둑을 두고 있는 송순과의 모습은 임억령의 상황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임억령은 자신이 학이 되어 면앙정에서 悠悠自適하게 지내고 있는 송순에게 자신의 궁곤한 수심을 하소연 하고 싶다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장자적 탈속주의의 유형에 속한다.

「奉呈企村先生吟案」 또한 임억령이 두 번째 귀향시기에 星山에서 송순에게 보낸 시이다. 임억령의 송순에 대한 경외심이 잘 드러난 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歸來一壑逍遙客	어느 산골에 돌아와 소요하는 나그네
出入三朝老大身	세 조정을 드나들었던 늙고 큰 분이네.
箱篋至今藏表裏	상자 속에 지금까지 겉과 속을 감추었으니
仁恩曾被善山民	어지신 은혜 입은 사람은 선산 임씨 저입니다.
楊柳風前時抱膝	버들나무에서 불어오는 바람 앞에 때때로 무릎을 포개고
芭蕉林裏自觀身	파초 숲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살피네.
邑人莫以官人畏	읍내 사람들은 벼슬한 사람이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니
我本山中種豆民	내 본래 산속에서 콩 심는 백성이었네.

奉呈企村先生吟案[75]

시의 제목은 「기촌 선생께 삼가 올림」이다. 어느 산골에 들어와서 지내는 나그네는 세 번의 조정을 출입했던 나이 많은 큰 사람이다. 그 큰 사람인 송순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임억령이라고 하고 있다. 그 사람과 달리 나는 지금 산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

예전에 세 조정에서 벼슬까지 했던 어른을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고을의 관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을의 관리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 고을의 관리가 仁政을 베풀어서 편안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가렴주구의 정치를 한다면 백성들은 그 고을의 관리가 어떤 것 보다 두려워할 것이다. 이것은 관리로서 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임억령 또한 인정을 베푸는 송순의 평범한 백성임을 말하고 있다. 그런 송순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임억령의 시정이 반영된 시이다. 장자적 탈속주의의 유형에

75) 임억령, 「奉呈企村先生吟案」, 『석천집』 4책, 211면.

속한다.

「次宋海賓追遠堂企村韻」은 임억령이 두 번째 귀향 시기에 星山에서 송순에게 보낸 시이다. 임억령의 『석천집』 5冊 269면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이 시는 위의 두 시와 달리 임억령이 64세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鄕里曾稱聖小兒	향리에선 일찍이 착한 아이라 칭송되었으니
一家貽厥豈無基	한 가정의 내림에 어찌 바탕이 없으랴.
經營自作詩書地	스스로 詩書 익힐 곳을 지어 경영하니
丘壑眞成麋鹿姿	속세를 떠나 丘壑에서 참으로 麋鹿의 모습이 되었네.
宿露凄凄秋迸淚	가을이면 맺힌 이슬 쓸쓸하여 눈물 흐르게 하고
啼鳥渺渺夜供思	밤이면 새 우는 소리 아득하여 생각 떠오르게 하네.
傳聞大舜終身慕	전해 듣건대 大舜을 종신토록 섬긴다고 하니
此道千年子獨追	이 길을 그대 오랫동안 홀로 좇았네.

次宋海賓追遠堂企村韻[76]

이 시의 제목은 「송해빈의 추원당에서 송순의 시에 차운하여」이다. 임억령은 자신이 동경한 전원생활을 영유하고 있는 송순에 대한 그리움을 이 시에 담아냈다. '가을이면 맺힌 이슬 쓸쓸하여 눈물 흐르게 하고', '밤이면 새 우는 소리 아득하여 생각 떠오르게 한다'는 시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장자적 탈속주의의 유형에 속한다.

「和企村」은 『국역 석천집』의 木版本(晩松文庫)에서 인용한 시이다. 이 시는 임억령이 송순에게 보낸 시로,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전원생활을 하고자 한 임억령의 희망이 반영된 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斜陽秋月千層峀	斜陽에 추월산 천 층의 봉우리
半世荷衣一病身	반평생 荷衣 입은 한 사람의 병든 몸.
官事未休長閣筆	관청의 일을 쉬지 못해 오래 붓을 물리치니
敗吾佳興是村民	나의 아름다운 흥을 깨게 하는 것이 촌민들이네.
騷動兵戈猶在眼	시끄럽던 兵戈가 아직 눈에 선한데
疎迂儒術豈謨身	迂闊한 儒術로 어찌 몸을 꾀하리오.
爲官不似歸田樂	벼슬을 함이 농가로 돌아감만 못하니

76) 임억령, 「次宋海賓追遠堂企村韻」, 『석천집』 5책, 269면.

每憶生平晋逸民　　평생에 늘 晉의 逸民(陶潛)을 생각하네.

和企村[77]

이 시의 제목은 「기촌에게 화답하여」이다. '斜陽'이라는 것은 '해질 무렵에 비스듬히 비치는 해'를 말한다. 추월산에 사양이 비치니 해질 무렵인 것이다. 반평생 荷衣 입은 병든 몸은 임억령을 말하는 것이다. '荷衣'를 입고 다니는 것에서 연유하여 임억령이 스스로 '荷衣道人'이라고 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관청의 일로 인하여 붓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토로하였으며, 또한 백성들로 인하여 그가 시흥에 젖어들 수 없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는 도연명의 삶에 빗대어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전원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심정을 송순에게 토로하였다. 장자적 성향을 기본적으로 띠고 있으며 유교적 현실주의와의 괴리감을 토로한 시이다.

「次俛仰亭韻」, 「奉呈企村先生吟案」, 「次宋海賓追遠堂企村韻」, 「和企村」은 모두 장자적 탈속주의의 유형에 속한 교유시이다. 「和企村」은 유교적 현실주의와의 괴리감도 나타내고 있다.

(2) 金允悌

金允悌(1501~1572)의 本貫은 光州이며, 字는 恭老이고 號는 沙村이다. 1528년 式年試에 진사시 합격했고, 弘文館敎理·扶安郡守·羅州牧使 등 13개 고을의 지방관으로 나갔다. 나주목사로 있을 때, 高峯 奇大升이 『朱子大全』에서 뽑아 엮은 『朱子文錄』 4冊을 간행하였다. 관직을 떠난 뒤,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 양성을 하였다. 성산동으로 물어난 후 '環碧堂'이라는 정자를 짓고는 술잔을 들고 시를 읊으면서 스스로 즐겼으며, 당시 호남의 이름난 시인들이 찾아와 시단을 형성하였다.

「次恭老韻(二首)」은 임억령이 두 번째 星山 시기에 김윤제에게 보낸 시이다. 이 시가 『석천집』 5冊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임억령이 노년을 보낸 두 번째 星山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수 중 두 번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7) 최한선 외, 「和企村」, 『국역 석천집』, 木版本(晩松文庫), 509면.

星山松石洞　　성산의 송석의 골짜기는
衰老托殘生　　늙은이가 여생을 의탁한 곳이라네.
賴有知心子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힘입음은
眞同喚友鷽　　정말이지 벗을 찾는 꾀꼬리와 같네.
天晴明鶴背　　하늘이 개이니 학의 등처럼 환하고
雨歇亂溪聲　　비가 그치니 시내 소리가 요란하네.
日暮衣常潤　　해는 저물어 옷은 촉촉이 젖었는데
悽迷霧入楹　　싸늘한 안개까지 기둥 안으로 들어오네.

次恭老韻(二首) 其二[78]

이 시의 제목은 「공로의 운에 차운하여」이다. 성산의 松石洞은 늙은이가 餘生을 의탁하는 곳이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꾀꼬리가 짝을 찾은 것과 같다. 짝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고도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비온 뒤 하늘이 개이니 세상은 학의 등처럼 하얗고, 비가 그치고 난 개울은 물이 불어서 시내 소리가 요란한 것이다. 저녁 이슬에 옷은 촉촉이 젖었으며, 밤안개가 기둥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송석동이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깊은 산속에서 외로이 지냈으나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김윤제가 있어 기쁘다는 임억령 자신의 심정을 은유적으로 비유한 시이다. 장자적 탈속주의의 유형에 속한다.

「題恭老所藏玉笛袱」 또한 임억령이 두 번째 星山 시기에 김윤제에게 보낸 시이다. 이 시는 임억령이 옥피리에 빗대어 자신의 슬픈 심정을 김윤제에게 토로한 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斫却瀟湘雨竹寒　　瀟湘江[79]의 비 맞아 차가운 대나무를 베었더니
至今猶帶淚痕斑　　지금까지도 눈물이 어려 있고 흔적이 아롱져 있네.
吹時莫向溪堂月　　피리를 불적에는 시냇가 집의 달을 향하지 말지어니
驚起靈湫蛻骨蟠　　영추에서 벗은 용을 놀라 깨우네.
玉笛秋風響易哀　　가을바람에 부는 옥적은 울림이 슬프기 마련이고
蒼沒碧質不凡村　　푸른 무늬 푸른 바탕이라 일상의 재복이 아니네.
林翁最紀西湖思　　林翁에게는 西湖(林逋)의 생각이 가장 날지니

78) 임억령, 「次恭老韻」(二首) 其二, 『석천집』 5책, 238면.
79) 瀟湘은 瀟水와 湘水를 일컫는데 현재 호남성 동정호 남쪽에 있다.

落盡山村無限梅　　산마을엔 수많은 매화가 다 지고 말았네.

題恭老所藏玉笛袱[80]

이 시의 제목은 「恭老가 소장하고 있는 옥적의 보에 쓰다」이다. '옥적'이라는 것은 옥으로 만든 피리이다. 가을바람에 부는 옥피리 소리는 가을이기에 더더욱 슬프다. 가을바람에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에 빗대어 임억령 자신의 서글픈 심정을 토로하였다. 장자적 탈속주의의 유형에 속한다.

이상으로 성산에서의 교유시를 살펴보았다. 임억령의 환로 시기가 괴로운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다면, 성산의 시기는 자연과 동화된 삶의 시간이었다. 1557년 62세에 담양부사에 제수되고 1559년 64세 나이로 棄官歸鄉 했으며, 1561년 이후는 성산동에 은거하면서 73세의 일기로 죽기 전까지 만년을 보내게 된 시기이다. 이렇듯 성산은 임억령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제 2의 고향인 곳이다.

그에게 성산이 많은 의미를 갖는 이유는 성산 인근에 詩友가 많았으며, 고향인 해남과 그다지 먼 곳이 아니었기에 편안했으며, 성산의 시기에 다른 것을 동경하고 있기에는 이미 노년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성산은 詩壇을 형성한 곳이기도 하며 많은 이들과 교유 활동을 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성산은 임억령에게 중요한 곳이다.

3) 沙門과의 交遊詩

師, 上人, 山僧은 스님에 대한 敬稱 또는 平稱을 붙인 경우와 그렇지 않고 法號만을 쓴 경우에 사용되는 불교 용어이다. 보통 스님을 法師라고 하고, 큰 스님을 大師 또는 師父라고 하는데, 요즘은 주로 師父라고 부른다. 선비가 스님들과 서로 친한 경우에는 보통 法師라고 부르지 않고 법명 뒤에 師자만 붙여서 쓴다.

上人은 智德이 갖추어져 있는 佛弟子를 가리키므로 僧侶를 높이어 일컫는 말이다. 『釋氏要覽』·「稱謂」에 '안으로 덕과 지혜가 있고 밖으로 뛰어난 행실이 있어 남보다 위에 있으면 上人이라 이름 한다.'[81]고 하였다. 그러다가 南宋 이후에는 和尙[82]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인은 곧 뛰어난 고승을

80) 임억령, 「題恭老所藏玉笛袱」, 『석천집』 5책, 250면.
81) "內有德智 外有勝行 在人之上 名上人." (「稱謂」, 『釋氏要覽』)

가리키는 말이다.

임억령은 佛僧들과 交遊가 많다. 그의 시에는 佛僧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거나 불승의 한가로운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불승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등이 나타난다. 沙門과의 교유시는 임억령의 전 생애를 통틀어 지어진 것이다. 그의 불교 관련 시는 약 200여 수에 달하는데 40대에서 50대에 걸쳐 100여 수가 제작되었으며, 관직에서 물러난 64세 이후부터 세상을 등지는 73세까지 약 10여 년 동안에는 25여 수만이 제작되었다.[83] 沙門은 불교에서 출가하여 수도에 전념하는 사람으로 스님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沙門과의 교유는 억불정책이 시행된 사회 정황상 드문 일인데, 임억령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沙門과의 교유가 많았다. 이러한 점은 임억령의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다. 沙門과의 교유시 중에서 두 수 이상의 시를 남긴 인물로는 能師, 性安, 玉上人, 圓師, 仁師, 印師, 天冠山僧 등을 들 수 있다. 仁師의 경우는 4수가 전한다. 임억령의 심정이 비교적 잘 드러난 能師, 玉上人, 仁師에게 보낸 교유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能師

「贈能師」는 임억령이 첫 번째 星山 시기에 能師에게 보낸 시이다. 이 시는 임억령의 친불교적 경향과 정신적 지향이 드러난 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頭輪枕大洋	두륜산이 큰 바다를 베고
雄雄半空出	하늘로 솟아 웅장하게 짝을 이루네.
病夫暫來遊	지친 나그네 잠시 놀러왔지만
能也居眞佛	能師는 참다운 부처가 되어 머무네.
寧爲乞糧僧	차라리 양식 구걸하는 스님이 될지언정
捆履平生不	평생 짚신을 삼지는 않겠네.
此僧必識道	이 스님은 반드시 도를 알겠건만
問之佯口吃	물어보자 일부러 어눌한 척 하네.

贈能師[84]

82) 和尙은 修行을 많이 한 중, 또는 '중'의 높임말이다.
83) 최한선, 「石川詩에 나타난 思想的 傾向」, 『대구어문총론』 10, 대구어문학회, 372~373면.
84) 임억령, 「贈能師」, 『석천집』 2책, 139면.

이곳의 배경은 전라남도 해남군 三山面 남쪽에 있는 頭輪山[85]이다. 두륜산에 잠시 온 병든 나그네인 임억령은 양식을 구걸하는 것으로 수련을 대신하기도 한 能師에게 진정한 도가 무엇인가를 묻고자 한 마음을 시를 빌려 표현하였다. 비록 당시는 엄격하게 억불정책이 시행된 시기였지만 임억령은 스님들과의 교유를 통하여 세속의 진정한 도를 알고자 하였다. '차라리 양식 구걸하는 스님이 될지언정'이라는 시구에서 임억령의 친불교적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이 스님은 반드시 도를 알겠건만 물어보자 일부러 어눌한 척 하네'라는 시구에서는 임억령의 친불교적 성향과 더불어 정신적 지향을 엿볼 수 있다.

(2) 玉上人

「贈玉上人長篇走筆(二首)」은 임억령이 두 번째 宦路 시기에 玉上人에게 보낸 시이다. 이 시에는 임억령의 친불교적 성향이나 정신적 지향보다는 장자적 성향이 드러나 있다. 임억령이 玉上人에게 보낸 2수 중 두 번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山人每說山雲靜	산 사람은 항상 산 구름 고요하다 하는데
猶逐山風出岫紛	오히려 산바람을 쫓으며 산굴에서 나와 어지럽네.
我則無心入山水	나는 무심히 山水에 찾아들어
暮年蹤迹懶於雲	만년의 행적을 구름에 내맡기네.

贈玉上人長篇走筆(二首) 其二[86]

이 시의 제목은 「玉上人에게 장편의 시를 써서 주다」이다. '산에 살고 있는 스님은 구름이 고요하다고 한 반면 임억령은 구름이 산바람에 쫓겨 어지럽다.'라고 하였다. 이 시구에는 玉上人과 임억령의 자연을 바라보는 상반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玉上人은 불교에 귀의한 수련자인 반면 임억령은 관직에 있는 俗人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구름이 산바람에 쫓겨 어지럽다'라는 시구를 '無心'히 자연에 몰입하는 자신보다 낮은 경지에 있는 의미로 파악하여 임억령에게도 구름 자체는

85) 頭輪山은 전라남도 해남군 三山面 남쪽에 있는 산, 大芚山・大興山이라고 불리는 산이다.
86) 임억령, 「贈玉上人長篇走筆」(二首) 其二, 『석천집』 3책, 181면.

無爲의 상징으로 보았다.[87] '나는 무심히 山水에 찾아들어, 만년의 행적을 구름에 내맡기네.'란 시구에는 자연의 경관에 심취하여 노년을 자연과 더불어 하고자 하는 임억령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3) 仁師

「贈仁師」는 임억령이 첫 번째 星山 시기에 仁師에게 보낸 시이다. 이 시는 세상의 덧없음을 읊은 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依舊靑山綠水新	靑山은 옛 그대로건만 綠水는 새로워라
芭蕉林裡自觀身	파초숲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보네.
他時莫忘相逢地	뒷날 서로 만날 곳을 잊지 마시게
柿葉成陰杏又仁	감나무 잎이 그늘을 이루고 살구 또한 어지네.

贈仁師[88]

羅愿의 『爾雅翼』에서 감나무의 뛰어난 점, 일곱 가지를 말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가 그늘이 넓다는 것이다. 그늘이 넓다는 것은 다른 낙엽보다 잎이 큰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곱 번째는 낙엽이 비대해서 글씨 쓰기가 좋다는 것이다. 글씨를 쓸 종이가 없을 때, 낙엽에다가 글씨를 쓴 것이다. 감나무 잎은 다른 낙엽보다도 두껍고 잎 크기가 커서 글씨를 쓰는 용도로는 좋은 것이다. 감나무 잎이 그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仁師가 수행과 함께 많은 공부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仁師는 감나무와 살구가 익어가는 곳, 청산에서 살고 있다. '仁'은 여기서 중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어질다는 의미'와 '仁師'를 나타내는 중의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仁師가 어질다'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나타내고자 한 표현인 것이다.

「贈仁師」는 임억령이 두 번째 宦路 시기에 仁師에게 보낸 시이다. 이 시는 강원도 관찰사 재임 시에 仁師에게 보낸 시로 추정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欲落山頭石	산머리의 바위를 굴러 내려서
長鳴僧外川	승가 밖의 세상을 기리 깨쳐주고 싶네.

87) 박은숙, 앞의 논문, 105면 참조.
88) 임억령, 「贈仁師」, 『석천집』 2책, 137면.

無有救焚溺　　어려움에 있는 중생[89]을 구제할 수 없으나
吾計此安禪　　나는 여기에서 편안히 參禪이나 하리.

贈仁師[90]

仁師가 산에 있는 바위를 굴려서라도 僧家 밖의 곤궁한 지경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해 주고 싶으나 스님의 신분으로 현재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스님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곤궁함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참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仁師가 중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이다. 임억령은 이런 仁師를 보면서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각자의 능력과 방법으로 백성들을 위해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仁師를 통해서 깨우치게 된다.

「正陽贈仁師」는 임억령이 두 번째 宦路 시기에 仁師에게 보낸 시이다. 이 시 또한 강원도 관찰사 재임 시에 仁師에게 보낸 시로 추정된다. '正陽'이란 시어가 이를 입증한다. 시의 제목에 나타난 '正陽'은 강원도 금강군에 있는 正陽寺를 의미한다.[91]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無肉又無毛　　흙도 없고 숲도 없이
萬古白骨立　　긴 세월을 백골로 서 있네.
瘦影大空橫　　수척한 모습 허공에 가로질러 있고
硬根東溟入　　굳센 뿌리는 동해로 뻗어 있네.
猿猱尙難攀　　원숭이도 오르기 어려운 곳을
獨有蛟龍蟄　　오직 蛟龍이 움츠리고 있네.
日暮嵐氣濃　　해는 저물어 산 아지랑이 짙어져서
客子衣棠濕　　나그네의 옷을 적시네.

正陽贈仁師[92]

正陽寺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흙도 없고 숲도 없이 백골이 서 있다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정양사 주변의 경관이나 정양사의 모습을 말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89) 焚溺은 困苦한 지경에 빠져 있는 백성이다.
90) 임억령, 「贈仁師」, 『석천집』 3책, 181면.
91)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사찰로 북한 국보 문화유물 제99호이다.
92) 임억령, 「正陽贈仁師」, 『석천집』 3책, 182면.

는 仁師의 모습을 말한 것이다. 仁師는 수행을 많이 했거나 정양사의 주지 스님 정도의 스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척한 모습 허공에 가로질러 있고 굳센 뿌리는 동해로 뻗어 있네.'라는 것은 많은 수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仁師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수행으로 인하여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수행의 내공이 깊어져서 나무가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표현을 굳센 뿌리가 동해로 뻗었다는 시구로 표현하였다.

仁師와 대비되는 것으로 원숭이를 말하고 있다. 원숭이는 잔꾀를 잘 부리는 동물로 인식되어 있다. 仁師의 수행 내공은 잔꾀를 잘 부리는 원숭이가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곳이다. 仁師는 이미 蛟龍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仁師의 수행하는 모습이 교룡이 움츠리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仁師의 수행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해는 저물어 산 아지랑이가 짙어져서 나그네의 옷을 적시네'라는 시구로 표현하고 있다. 仁師의 수행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산 아지랑이로 인하여 나그네의 옷이 젖고 있는데 仁師는 수행에 집중하여 그 또한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으로 仁師의 수행의 정도와 깊이를 표현하였다.

「贈仁師」는 자연의 정경을 잘 묘사한 시이다. 이 시 또한 임억령이 강원도에 있을 때 仁師에게 보낸 시로 분류한다. 위의 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억령이 강원도 관찰사로 재임할 때 仁師와 교유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시가 임억령의 『석척집』 3冊에 수록된 것 또한 이를 입증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雨霽水還鳴	비 개자 개울물 소리 또 울리고
日斜石更潔	해 기울자 돌 빛은 다시 깨끗해지네.
深思一窮尋	깊은 생각 한결같이 진리를 찾으니
高處僧亦絶	높이 있는 스님 또한 빼어난 모습이네.

贈仁師[93]

이 시는 수채화를 연상하게 한다. 비가 내릴 때는 빗소리에 개울 물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비가 개이고 나니 다시 개울 물소리가 들리고 있다. 해가 저무니 밤이슬이 내려 돌이 더 깨끗해졌다. 仁師는 한결같이 진리를 찾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스님이다. 仁師가 수행하는 모습은 자연의 모습만큼이나 빼어나게 멋지며 자연과 함

93) 임억령, 「贈仁師」, 『석천집』 3책, 182면.

께 어우러져 있어 더더욱 한 폭의 수채화와 같다. 이 시는 수채화 같은 자연의 모습과 仁師가 수행하는 모습이 先景後情으로 잘 표현된 시이다.

이상으로 沙門들과의 교유시를 살펴보았다. 沙門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출가하여 수도에 전념하는 사람으로 스님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임억령의 시 중 불교와 관련된 시는 약 200여 수에 달한다. 40~50대에 걸쳐 100여 수의 시를 지었으며, 그 나머지 시들은 전 생애를 걸쳐서 지어진 것이다. 불교 관련 시 중에서 '沙門'과의 교유시는 70여 수에 달한다.

임억령과 沙門들과의 교유는 신분의 차이나 지위를 떠난 사귐으로 '忘形之交'라고 할 수 있다. 억불정책이 시행된 당시의 사회 정황상 沙門들과 교유를 한다든지 한 사람이 沙門들과 이렇게 많은 시를 교유한 경우는 드물다. 동년배나 선후배와 교유한 이들은 많지만 沙門과 교유한 이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임억령 시의 풍격 가운데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Ⅲ. 交遊詩의 風格

전항에서 임억령의 교유시를 宦路에서의 교유시, 星山에서의 교유시, 沙門과의 교유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따라서 전항에서 인용하지 않은 작품을 다시 분석하여 풍격을 살펴보고 그러한 풍격이 그의 삶과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그치려 한다. 즉 행적과 宦路에서의 자질을 통해 엿볼 수 있는 풍격이 교유시에 어떻게 습합되거나 투영되어 작품 풍격으로 전이되는가를 살펴 교유시가 갖는 의의를 진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임억령의 삶에서 다양한 인물과의 교유는 만나고 헤어지는 의식을 단순하게 노래하고 있지 않다. 그의 삶에서 외연의 확장이요, 내면세계의 충족과 관련되었다고 생각된다. 임억령에 대한 평가는 그의 명성에 걸맞게 시화와 묘갈, 그리고 문집의 서문 등에 산재되어 있다. 이들 평가를 총괄하면, 행적을 바탕으로 평가한 절개, 환로에서의 자질, 그리고 시풍으로 나뉜다.[94] 이는 임억령이 갖는 인물 풍격과 작품 풍격을 동시에 조명한 평가이다. 당대와 후대인들이 임억령에 대한 풍격의 평을 살펴보자.

① 참의 임억령의 호는 石川이니 해남인이다. 그의 시는 俊逸하고 淸新하여 일찍이 세상에 이름을 날렸다.[95]

② 석천은 옛날 은사처럼/ 비바람이 휘두르는 붓에서 생기네./ 俊逸함과 淸新함/ 공께서 이제 합하여 하나가 되었네. …<下略>[96]

③ 선생의 사람됨은 奇偉高潔하여 세속에 따라 구차하게 영합하지 않아 이로써 자주 간신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벼슬은 항상 유락하여 불우하였고 을사년의 화가 일어남에 이르러 더욱이 다시 당시의 세상에 뜻이 없어 오로지 은퇴만을 생각하였다.[97]

---

94) 이에 대한 논의는 김동준, 앞의 논문, 420~402면 참조.

95) "林參議億齡號石川海南人 爲詩俊逸淸新 早名於世." (沈守慶, 『遣閑雜錄』, 『韓國詩話叢林』 卷1, 조종업 편, 642면)

96) "石川古遺士 風雨生揮筆 俊逸與淸新 公今合爲一 …<下略>" (李珥, 「次石川見寄韻」, 326면)

①, ②, ③에서 보듯 임억령의 작품풍격은 俊逸, 淸新, 奇偉, 高潔 등으로 평하고 있다. 특히 임억령과 동시대를 살았던 沈守慶과 李珥는 俊逸과 淸新을 풍격으로 평하고 있다. 준일과 청신은 唐나라 杜甫의 「春日憶李白」에서 庾信을 淸新으로 鮑照를 俊逸로 평하였다.[98] 俊逸은 일반적으로 '超群拔俗'으로 무리에서 초월하고 俗氣가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 淸新은 작품의 일반적인 품격용어로 世俗의 습관이 된 格式에 빠지지 않은 기법적인 면을 평가할 때 흔히 사용한다. 후대에 임억령의 「행적기략」을 쓴 金壽恒은 인물풍격으로 奇偉하며 高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이의 평에서 '奇偉'는 임억령의 인물 풍격을 강조한 것이고, '高潔'은 임억령의 인물과 작품의 풍격을 겸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외도 허균은 '壯麗'함을, 이중열은 '豪放'함을, 박세채는 '雄肆豪逸'함을 풍격으로 말하기도 하였다.[99]

이를 정리하면, 임억령의 일반적 작품풍격은 '淸新, 高潔'을 강조하고 있고, 인물풍격으로는 '俊逸, 奇偉'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본장은 교유시가 갖는 특성을 살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작품풍격과 교유시의 상관성에 중점을 두려한다.

1. 淸新

'淸新'의 풍격을 살펴보자. 시어가 참신하고 새로우며 독특하지만 속되지 않음을 일컫는 풍격을 나타내며 주로 표현을 강조할 때 쓰인다.

예를 들면, 두보의 「絶句」 시를 살펴보자.

兩個黃鸝鳴翠柳	꾀꼬리 한 쌍 푸른 버들 숲에 지저귀고
一行白鷺上靑天	백로 한 무리가 푸른 하늘로 날아가네.

97) "先生爲人 奇偉高潔 不隨俗禍合 以此屢憎奸 回仕官 常留落不遇 至乙巳 苟作益無 復當世志 一意斂退." (金壽恒, 「行蹟紀略」, 『石川集』, 驪江出版社, 1989, 320면)

98) "淸新庾開府 俊逸鮑參軍." (杜甫, 「春日憶李白」)

99) "林石川爲人高邁 詩亦如其人 洛山寺詠龍飛雨降之狀 文勢飛動 殆與奇觀 敵其壯麗." (許筠, 『惺叟詩話』, 『韓國詩話叢林』 卷2, 조종업 편, 722면)

"林億齡 …… 學識有方處心剛 英氣發越 文詞豪放." (李仲悅, 『乙巳傳聞錄』, 『國譯大東野乘』 卷3, 민족문화추진회, 410면)

"少以詞藝顯 出人華膴 ……其爲文章 雄肆豪逸 大抵原於南華(莊子)靑蓮(李白)." (朴世采, 「石川先生墓表」, 『석천집』, 305면)

窗含西嶺千秋雪　　창엔 서쪽 산마루의 천년설 머금었고
門泊東吳萬里船　　대문엔 동오의 만 리길 배가 정박하네.

絶句(六首) 其三[100]

이 시는 당시 시인의 눈에 보이는 경물을 묘사하여 그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景色 속에 動景과 靜景이 살아 있어 시어는 淸新하고 생동감을 준다. 이처럼 일상적인 시어로 활용하여 대상을 표현하더라도 속된 기운이 없음을 淸新한 풍격이라고 한다.

임억령의 知己로 성수침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전술했듯이 임억령의 두 번째 宦路 시기에 성수침에 보낸 시이다. 이 시기에 벼슬살이 연연하지 않고 전원행을 추구하던 두 사람이니 그들의 우의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임억령은 성수침이 京畿道 積城 현감으로 나가자 송별하며 읊은 시는 그들의 우의뿐만 아니라 기법에서도 淸新함을 엿볼 수 있다.

老作絃歌宰　　늙어서 子游같은 관리가 되어
將歸松桂林　　장차 송계림으로 돌아가려 하네.
非貪惠州飯　　혜주 고을의 밥을 욕심 내여
欲說病親心　　병든 어버이 마음을 기쁘게 마오.
螘汎陶潛酒　　거품은 도잠의 술동이에 뜨고
風生子賤琴　　바람은 복자천의 거문고에 나오네.
山川從此隔　　산천은 지금부터 나누어져 막히니
日暮白頭吟　　해 저무는데 백두음을 노래하네.

「別聽松之積城」[101]

이 시의 제목은 「적성으로 가는 청송을 송별하며」이다. 임억령이 외직으로 나가는 성수침에게 벼슬살이에 대한 권고가 잘 나타난 작품이다. 임억령은 首聯에서 성수침을 絃歌宰로 형상화하고 있다. 絃歌宰는 禮樂으로 백성을 다스렸던 子游의 행위를 가리킨다. 孔子의 제자 子游가 武城 땅을 다스린 적이 있었는데, 그는 禮樂으로 백성들을 교화하려던 공자의 가르침대로 고을을 잘 다스렸다. 공자가 무성을 방

100) 杜甫, 「絶句」(六首) 其三, 『杜少陵詩集』 卷13.
101) 임억령, 「別聽松之積城」, 『석천집』 3책, 194면.

문했을 때 마을마다 거문고 소리가 들리고 인심이 순후한 것을 보고 공자가 칭찬했다. 곧 외적인 문제에 욕심을 내지 말고 백성의 교화가 중요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頷聯에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적성보다 큰 고을 다스릴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도연명이 고향에서 생활했듯이 살며, 공자의 제자 宓子賤이 單父(선보) 고을의 수령이 되었을 적에 마루 아래로 내려오는 일이 없이 거문고만 연주했는데도 잘 다스려졌듯이 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떠나면 서로 길이 멀어 각각의 생활을 해야 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없어 임억령은 白頭吟을 읊조린다. '백두음'은 본디 前漢 司馬相如의 처 卓文君이 지은 오언시로, 사마상여가 茂陵 여인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자, 탁문군이 사마상여와는 백발이 되도록 정분을 잊지 못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지은 것이다. 즉 白頭吟은 두터운 교분을 가까이에서 계속 이어 갈 수 없게 된 것을 읊은 시를 말한다. 임억령은 성수침을 보내며 다시 만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표현에서도 자유와 도연명, 복자천, 사마상여의 백두음이란 전고를 활용하여 임억령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표현은 직설적이거나 세속의 뜻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고함을 간접적으로 표출하여 화자인 임억령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淸新'한 풍격이라 할 수 있다. 즉 진부하지 않고 산뜻하며 새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새롭고 精致한 구상과 생동감 있는 시어로 대자연과 인간이 합치된 아름다움을 의미가 심장하게 그려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102]

고향으로 돌아온 임억령은 曺汝諶(1518~1582)이 담양에서 경영하던 누정인 환학당에서 면앙정의 시에 차운한 시에서도 나타난다.

一穗蒼烟起草廬	한 줄기 푸른 연기 초가에서 이니
蕭條眞箇隱人居	고요하여 진실로 隱人의 거처라네.
安貧兒報缸無粟	안빈하여 아이가 항아리에 곡식 없다지만
知足君言我有餘	만족하여 자네가 나는 넉넉하다고 말하네.
小築幽偏不雜塵	작은 집 그윽한 곳에 있어 먼지 섞이지 않고
盤中一筯紫芝新	소반 가운데 젓가락엔 붉은 지초만 신선하네.

102) 정요일 외 2인, 『고전비평용어연구』, 태학사, 1998, 350면 참조.

堂空客散唯留鶴　　집이 휑하고 나그네 떠나니 학만이 남아 있어
風拂玄裳露滴身　　바람이 학을 거스르니 이슬이 몸을 적시네.

「喚鶴堂次俛仰韻」[103]

이 시의 제목은 「환학당에서 면앙의 시에 차운하여」이다. 이 작품은 고고한 인품을 지닌 후배의 환학당의 인상을 안빈낙도의 삶과 군자의 호젓한 모습으로 승화시켰다. 首聯에서는 환학당에서 느껴지는 인상은 그야말로 숨어사는 은자의 일면이 엿보인다고 하였다. 頷聯에서는 '항아리에 곡식이 없다'고 말하는 아이의 솔직한 이야기에서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지내는 安貧樂道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가난하지만 그래도 나는 만족함을 알기에 여유가 있으며 넉넉하다고 하고 있다.

임억령은 頸聯에서 집이 한쪽에 치우쳐 있고 작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고 언명하며 내놓은 소반의 지초처럼 신선하다고 하였다. 이것이 신선의 삶이요, 학과 같은 고고함을 느낄 수 있어 임억령 자신도 거기에 흠뻑 젖었다고 尾聯에서 말하고 있다.

자연과의 혼일한 삶의 모습 바로 청유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또한 꾸밈을 적게 하며 은일한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바로 이러함이 淸新이다. 이러한 시는 그의 시 전편에서 두루 나타난 현상이다. 청신한 풍격은 沙門들과의 작품에서 더욱 강하게 볼 수 있다. 스님이 둥근 부채를 주자 거기에 사례로 지은 시인 「謝僧贈圓扇」을 살펴보자.

晨有僧來贈　　새벽에 스님이 와서 부채를 주어
輕明野蔓粧　　날이 밝자 풀 넝쿨로 단장하네.
薄於焦葉展　　파초 잎보다 얇게 펼쳤더니
飄似鶴翎翔　　학 날개 비상한 것처럼 나부끼네.
煩暑從今滌　　무더위 오늘로 씻어 내고
塵沙亦可揚　　세속 먼지도 날릴 만하네.
蒼生困火宅　　백성들 화택에서 곤궁한데
慚愧一身凉　　부끄럽구나, 이 몸만 서늘하니.

謝僧贈圓扇[104]

---

103) 임억령, 「喚鶴堂次俛仰韻」, 『석천집』 5책, 262면.
104) 임억령, 「謝僧贈圓扇」, 『석천집』 3책, 186면.

이 작품은 부채가 갖는 효용성을 통해 백성들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首聯에서 임억령은 스님이 선물한 부채에 野蔓 즉, 들판에서 덩굴져 자라는 풀을 그려 넣었다. 頷聯에서 부채를 펼쳤더니 학이 비상하는 것처럼 부채가 가벼이 나부꼈다. 그런데 頸聯에서 부채는 더위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먼지까지도 날려 버린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부채는 단순히 자신의 외적 욕망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면적 성찰을 추구하는 용도까지도 의미를 확장시켰다. 尾聯에서 자신만 이 부채를 통해서 시원함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번뇌에 시달리는 이 세상을 불타는 집에 비유한 佛家의 용어 '화택'을 전고로 사용하여 불볕에서 일하는 백성들로 의미를 확장시켜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고 있다.

이처럼 임억령은 부채를 통해 지나친 수식에 빠지지 않고 참신한 의경을 강조하고 있다. 수련에서 '野蔓'은 백성들로 확장해 나아가는 소재로 '話素'의 역할을 하였다. 경련의 무더위란 상황에서 尾聯의 백성들을 염려하는 것으로 의미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 확장은 기법의 참신성과 아울러 부채가 갖는 효용성이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확장되어 의경의 참신성을 가져다준다.

임억령의 교유시를 분석해 보면, 기법에서 직접적인 표현을 삼가고 기존의 의미에 집착하지 않고 은일한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이야말로 임억령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의식이 갖는 자세 즉, '俊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杜甫가 '詩淸立意新'이라 하여 蹈襲을 하지 말고 꾸밈을 적게 하여 신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임억령의 시에서 엿볼 수 있는 풍격도 또한 그러하기에 沈守慶과 李珥가 평하였다고 생각된다.

2. 高潔

高潔한 풍격을 살펴보자. '高潔'은 鍾嶸이 '마치 푸른 소나무에 관목으로 덮이고, 백옥에 티끌이 덮여도 그 고결함을 폄하하기에 부족하다'[105]고 했던 것처럼 임억령의 작가풍격이며 작품풍격이다. 또한 張若虛(660~720)의 「春江花月夜」에 '강 언덕에서 어떤 사람이 달을 처음 보았으며 강 위 달이 어느 때 사람을 처음으로 비추었는가.'[106]에서 시인은 마음을 자연과 인생에 대한 사색을 표현한 것이 바로 '高潔'

105) "譬猶靑松之拔灌木 白玉之映塵沙 未足貶其高潔也." (鍾嶸, 『詩品』 卷上)

함이다. 즉 고결은 마음의 표현인데 연에 대한 사색이 깨끗함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작품 풍격이라는 관점에서 고결을 살펴보려 한다.

임억령은 乙巳士禍가 일어나자 李芑·林百齡 등 小尹에 가담하여 衛社功臣 3등에 책록되고 東原君에 봉해졌다. 嘉義大夫에 올랐던 崔演의 운을 차운한 시 「次呈演之」에서 그가 갖는 宦路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多病春來默默藏	자진 병에 봄이 왔건만 묵묵히 숨어 있는데
吾年未老視茫茫	내 나이 늙지 않았건만 보이는 건 침침하네.
殘燈壁裏然孤枕	벽에 걸린 가물거리는 등불 머리맡에서 타고
寒杵霜前擣寸腸	상강 전에 처량한 다듬이 가슴을 두드리네.
雨注野桃臨水短	비가 들녘 복사꽃에 쏟아져 물 닿자 떨어지고
風搖宮柳拂窓長	바람이 버드나무 흔들어 창을 쓸어 나가네.
官如弊屐何妨脫	벼슬이 헤진 신과 같으니 어찌 벗길 꺼릴까
夢作田夫手種桑	꿈속에서 농부 되어 손수 뽕나무를 심는데.

次呈演之(四首) 其一[107]

임억령이 최연에게 스스로 자신을 항변하고 있는 듯한 시다.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가 주는 시대적 상황을 임억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다. 걱정이 많아 새 봄 즉, 새로운 시대가 왔어도 자신은 숨어 있다. 그래서인지 늙은 나이가 아닌데도 눈이 침침하여 상황을 판단할 수도 없다. 가물거리는 등불처럼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다. 다듬이질 소리처럼 마음을 억누르는 것은 임억령의 상황론이다. 동생인 임백령이 사화를 일으킨 주체로서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와 바람이라는 외적인 요소에 의해 본질인 복사꽃과 궁류는 힘없이 떨어지거나 쓰러진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는 단호히 '관직은 헤어진 헌 짚신짝과 같아서 쉽게 벗을 수 있다'고 하였다. 꿈꾸는 것은 농부가 되어 언제든 뽕나무라도 심을 수 있기에 관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임억령은 단순히 상황론에 따른 대처가 아니라 확고한 신념에 의해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다.

星山에서 교유는 그의 知己이며 고향친구인 면앙 송순과의 관계에서 엿볼 수 있다. 송순의 운에 차운한 시 「次韻俛仰」은 성산에서의 소회가 잘 나타나 있다.

---

106) "江畔何人初見月 江月何年初照人." (張若虛, 「春江花月夜」)
107) 임억령, 「次呈演之」(四首) 其一, 『석천집』 1책, 88면.

江南親舊凋零盡　　강남의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林下唯殘我與君　　임하엔 그대와 나만 남았을 뿐이네.
榮落在天同墮甑　　영락은 하늘에 달려 함께 깨진 시루니
往來隨意似浮雲　　마음대로 왕래하는 것이 뜬구름과 같네.

次韻俛仰[108]

이제 고향에는 친구들이 다 죽어 비단, 마음 열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임억령과 송순뿐이다. 억지로 榮枯盛衰를 갈무리하지 않고 하늘에 달려 있으며, 현실도 깨진 시루와 같이 한낱 그릇일 뿐이라고 치부한다. 墮甑은 『後漢書』의 「郭泰傳」에 '墮甑不顧'[109]란 말에서 유래하는데, 깨진 시루라는 말로 그르친 일을 애석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가난한 사람이 시루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지고 다니다가 그만 넘어져 시루가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자, 郭泰가 그것을 보고 묻자 이미 깨진 그릇에 관심을 가져야 무슨 이익이 있는가 하였다. 나중에 이 사람은 천하에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붙잡고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인생을 덧없는 '浮雲'에 빗대고 있다. 이처럼 임억령의 삶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와 그 자세를 시로 승화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고결함이다.

沙門과의 교유시를 보자. 그의 54세 작품으로 알려진 「贈潤玉小沙彌」는 고향에 있는 절 대둔사 젊은 스님에게 주는 작품으로 임억령의 삶에 대한 태도를 潤玉小沙彌에게 당부로 이야기하고 있다.

大芚山水好　　대둔산 산수 좋건만
僻在海之澨　　바닷가에 치우쳐 있네.
僧欲荷鉢囊　　스님은 바릿대 짊어지고
遠向名山去　　멀리 명산을 향해 떠나네.
朝來叩吾扉　　아침에 내 집 문 두드리니
汝坐吾語汝　　앉게, 내 자네에게 말하겠네.
人生一世中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며
孰不愛佳處　　누가 좋은 곳을 아끼지 않으리오.

108) 임억령, 「次韻俛仰」, 『석천집』 5책, 256면.
109) "客居太原 荷甑墮地 不顧而去 林宗見而問其意 對曰 甑已破矣 視之何益." (「郭泰傳」, 『後漢書』)

乃爲利名誘	이에 명리가 꾀인다 하면서
窘若蝨處絮	군색함은 이가 솜에 사는 것 같네.
往往觸危機	왕왕 위기에 부딪쳐
死於刀與鉅	칼과 끌에 죽어가네.
如我本疏懶	나 같이 본디 게으르면
浩然誰能禦	호연지기 뉘라 막을까.
薜荔以爲衣	벽려로 옷을 만들어
山僧以爲侶	산승으로 짝을 삼네.
深思遠遊之	생각에 잠겨 멀리 유람하니
而爲妻子沮	처자들이 가로막게 되네.
羨渠若浮雲	그대 부럽네, 뜬구름 같이
之秦又之楚	진으로도 가고 초로도 가니.
此身旣不顧	이 몸 이미 돌아보지 않아
衣食何足慮	의식을 어떻게 염려할까.
區區安用錫	구구하게 어떻게 석장을 쓸까
列子淸風馭	열자는 청풍을 부렸는데.
應追拍天鵬	하늘 닿은 붕새를 뒤쫓다가
俯看廁中鼠	구부려 사당 가운데 쥐를 보네.
出門各西東	문을 나서 동서로 헤어지니
天外鈒峯齟	하늘 밖에 칼봉들이 들쑥날쑥하네.

「贈潤玉小沙彌[110]」

임억령은 潤玉小沙彌의 운수행각을 자신의 삶과 동질화시켜 형상화하고 있다. 대둔사에 거처하는 潤玉小沙彌가 명산을 향해 떠나려 임억령의 집을 방문하자 삶이란 무엇인가를 말한다. 먼저 인간은 누구나 명예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으면 솜 속에 깃들어 사는 이[虱]와 같다. 그러나 왕왕 위기에 봉착하여 칼날에 죽어간다.

게으름으로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浩然之氣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벽려의'를 입고 은자로 살아가려 해도, 산승의 친구가 되어 마음대로 살려 해도 가족이란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潤玉小沙彌와 차이다. 몸을 돌보지 않은데 굳이 호의호식을 염려하지 않는다. 아울러 의식을 위해 석장을

110) 임억령, 「贈潤玉小沙彌」, 『석천집』 2책, 137면.

날려 구하지도 않는다. 석장은 흔히 불가에서 得道한 高僧은 '錫杖을 날려 목적을 이룬다'[111]라고 한다. 임억령은 자신이 득도한 스님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다. 열자가 바람을 몰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가뿐하게 보름 동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땅 위로 내려온 것처럼[112] 하면 그뿐이다. 고봉 기대승이 "인간의 크고 작음은 두루 분간 어려우니, 붕새 뱁새 본디부터 멀리 놀길 좋아하네."[113]라고 하여 임억령을 붕새에 비교했듯이 여기서도 자신의 대붕으로 형상화하였다. 대붕이 높은 곳에서 바라 본 것은 사당 쥐[社鼠]인데 바로 임금 곁에서 알랑거리는 간신이다. 그 간신들로 가득한 곳에서 나와 보니 또한 검봉들로 가득할 뿐이다. 이처럼 세상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굳이 임억령의 인물풍격이 절개라기보다는 자신이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작품을 통해서 고결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언행일치의 사유가 갖는 당대의 儒者로서의 삶의 자세를 그대로 엿볼 수 있다.

임억령의 생애는 현실적 처지와 정신적 동경 사이에서 끝없는 줄다리기였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일반적으로 동경하는 삶, 즉 육체적 영달 지향과 정신적 자유 지향의 두 목표를 추구하였으되, 결국 후자를 선택해서 삶의 방향을 수정해 간 것이 임억령의 일생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고향 해남과 바다에서 한양으로, 한양에서 星山으로, 星山에서 강원도를 거친 다음, 끝내는 담양의 星山으로 옮겨간 행적은 漢陽으로 대변되는 중앙 관료 지향의 출세 의지와 고향으로 상징되는 星山의 은일 지향의 정신적 자유의지가 교차되고 있다. 즉, 임억령은 '어느 바다 시인이 파란만장한 세상살이를 거쳐 마침내 산골에 은거하게 된 과정'[114]이라고 축약할 수 있다.

임억령의 생애에서 漢陽이 갖는 의미는 유가적 현세주의와 연결되는 것인 반면, 고향의 의미인 星山은 현실의 구속을 탈피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바, 친불교적 성향이나 장자적 탈속주의 등은 그 구체적인 표현 양상이었다. 육체적인 구속을 거부하고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였던 임억령의 생애에 분명히 정치인으로서의 위상보다는 시인으로서의 그것에 보다 근접한 것이었다. 벼슬에 연연하지는 않았을지언정, 詩友가 없으면 이내 酬唱할 상대를 찾아 떠나곤 했던 모습이 증명해 준다.

---

111) 孫綽, 「游天台山賦」, 『文選』 卷11.
112) "御風而行 泠然善也 旬有五日而後反." (「逍遙遊」 內篇, 『莊子』)
113) "人間小大辨難周 鵬鷃從來好遠遊." (奇大升, 「病中有懷石川先生併述鄙意」, 『高峰續集』 卷一)
114) 김동준, 앞의 논문, 433면.

이런 과정에서 '교유시'가 나오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교유시의 풍격도 이와 거리가 멀지 않다. 宦路에 있거나,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에 묻혀 있거나 그는 낙척을 슬퍼하거나 다시 宦路에 나가길 바라지 않고 자연의 순리를 그대로 순응하면서 '浮雲' 같은 삶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삶은 바로 '俊逸, 奇偉'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임억령의 작품에서 '淸新과 高潔'로 승화되었다고 생각된다.

Ⅳ. 결론

본 논문은 石川 林億齡(1496~1568)의 交遊詩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임억령이 호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문인들과 교유를 한 점에 주목하여 그 연구 대상을 임억령의 교유시에 한정하였다. 임억령의 교유시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교유시의 범주, 교유시의 분류와 유형, 교유시에 나타난 풍격 등을 낱낱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석천 임억령의 교유시를 고찰한 결과를 총괄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억령의 생애는 '星山(出仕 이전) → (出仕) 宦路 → (歸鄕) 星山 → (再出仕) 宦路 → (再歸鄕) 星山'의 순으로 귀결된다. 아울러 지역에 근거해 보면, '고향 海南과 星山 주변 고을 → 漢陽 → 星山과 주변 고을 → 江原道 → 星山' 등으로 귀결된다.

2. 교유시의 범주는 횡적 관계와 종적 관계로 나뉜다. 횡적 관계는 동년배와 沙門이고 종적 관계는 후배와의 관계이다. 종적 관계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교유시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3. 임억령의 교유시는 宦路, 星山, 沙門의 세 시기로 분류된다. 임억령의 교유시는 주로 유교적 현실주의, 장자적 탈속주의, 친불교적 성향 및 정신적 지향, 자연경관의 묘사 등의 유형으로 나뉜다. 교유시의 분류에 의거한 교유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宦路에서의 교유시

宦路에서의 교유시는 총 45수가 존재한다. 成守琛(1493~1564), 申潛(1491~1554), 崔演(1503~1549), 嚴昕(1508~1553)과의 교유시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宦路에서의 교유시는 대부분 유교적 현실주의와 장자적 탈속주의의 유형에 속한다.

2) 星山에서의 교유시

星山에서의 교유시는 총 23수가 존재한다. 宋純(1493~1582)과 金允悌(1501~1572)에게 보낸 교유시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星山에서의 교유시는 대부분 장자적 탈속주의의 유형에 속한다.

3) 沙門에서의 교유시

沙門에서의 교유시는 총 76수가 존재한다. 能師, 玉上人, 仁師에게 보낸 교유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임억령에게는 친불교적 성향도 나타난다. 아울러 그 정신적 지향의 하나로 불교 역시 자리함을 알 수 있었다. 沙門에서의 교유시는 친불교적 성향, 정신적 지향, 자연경관의 묘사 등의 유형에 속한다.

4. 임억령의 작품풍격은 俊逸, 淸新, 奇偉, 高潔, 壯麗, 豪放, 雄肆 등으로 평가된다. '俊逸, 奇偉, 壯麗, 豪放, 雄肆' 등은 임억령의 인물풍격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교유시의 시 풍격으로 '淸新'과 '高潔'을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淸新은 자연과의 혼일한 삶의 모습 바로 청유한 아름다움과 꾸밈을 적게 하며 은일한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나아가, 高潔은 임억령이 상황론에 따른 대처가 아니라 확고한 신념에 의해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삶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은일한 자세를 노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육체적인 구속을 거부하고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였던 임억령의 교유시는 바로 '俊逸, 奇偉'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임억령의 작품에서 '淸新과 高潔'로 승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자료

朴　祥,『訥齋集』.
李晬光,『芝峯類說』.
林億齡,『石川集(影印本)』.
林億齡,『石川先生文集』.

2. 단행본

光州廣域市・鄕土文化開發協議會,『石川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서출판 라이프, 1996.
權純烈,『松川 梁應鼎의 詩文學 硏究』, 月印, 2002.
閔丙秀,『韓國漢詩史』, 太學社, 1996
_____,『韓國漢詩代表作評說』, 太學社, 2000.
_____,『韓國漢文學槪論』, 太學社, 2004.
朴銀淑,『16세기 湖南 漢詩 硏究』, 月印, 2004.
朴焌圭, 『湖南詩壇의 연구 - 朝鮮前期詩壇을 중심으로』, 全南大學校출판부, 2007.
정요일 외 2인,『고전 비평 용어 연구』, 太學社, 1998.
趙麒永,『河西詩學과 湖南詩壇』, 國學資料院, 1995.
_____,『河西 金麟厚의 詩文學 硏究 - 道學的 世界認識과 詩的 範疇』, 아세아문화사, 1994.
趙隆熙,『조선중기 한시 비평론』, 한국문화사, 2003.
崔漢善 외,『국역 석천집』, 전라남도, 1996.

3. 논문

姜銓燮,「星山別曲의 作者에 대한 存疑」,『장암 지헌영선생 회갑기념 논총』, 1971.

_____,「星山別曲의 作者考證」,『慕山學報』45, 東亞人文學會, 1993.

權斗煥,「石川 詩文學의 特徵」,『石川 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선출판 라이프, 1996.

權純烈,「林億齡과 梁應鼎의 酬唱詩에 대한 硏究」,『石川 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서출판 라이프, 1996.

_____,「石川 林億齡의 '古器歌' 硏究」,『古詩歌硏究』 7, 韓國古詩歌文學會, 2000.

_____,「눌재 박상 연구」,『古詩歌硏究』21, 韓國古詩歌文學會, 2008.

權秋子,「林億齡의 漢詩 硏究」, 誠信女子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90.

_____,「石川 林億齡의 詩世界」,『誠信漢文學』2, 誠信漢文學會, 1990.

權赫明,「16세기 息影亭 詩壇의 詩世界 硏究 - 林億齡, 梁應鼎, 金成遠, 鄭澈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7.

_____,「16세기 石川 林億齡과 息影亭 詩壇 - 文學的 交遊樣相과 詩壇 形成을 중심으로」,『漢文學報』15, 우리한문학회, 2006.

_____,「聽松 成守琛 詩世界의 一考察 - '淸隱'의 詩世界를 중심으로」,『韓國語文學硏究』51, 韓國語文學硏究學會, 2008.

_____,「湖南 詞宗 林億齡의 詩作 敎育 一考 - 梁應鼎과의 '棠城酬唱詩'를 중심으로」,『漢城語文學』27,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8.

金銀洙,「石川의 親佛敎詩」,『石川 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서출판 라이프, 1996.

金東俊,「石川 林億齡의 生涯와 詩世界」,『한국한시작가연구』4, 한국한시학회, 1999.

金善祺,「石川 林億齡과 星山別曲」,『石川 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서출판 라이프, 1996.

金成基,「石川 林億齡과 星山洞」,『石川 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서출판 라이

프, 1996.
_____,「俛仰亭 宋純의 自然詩 硏究」,『南冥學硏究』10, 慶尙大學校 南冥學硏究所, 2000.
金信中,「林億齡과 <瀟湘八景歌>에 대하여」,『石川 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서출판 라이프, 1996.
柳年錫,「梁應鼎의 書札과 言行錄에 대한 硏究」,『古詩歌硏究』6, 韓國古詩歌文學會, 1999.
朴銀淑,「石川 林億齡의 生涯와 作品世界」,『漢文學論集』10, 근역한문학회, 1992.
_____,「『石川集』의 판본 비교연구」,『漢文學論集』13, 근역한문학회, 1995.
朴焌圭,「星山의 息影亭과 星山別曲」,『국어국문학』94, 국어국문학회, 1985.
_____,「息影亭의 創建과 息影亭記」,『湖南文化硏究』14,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硏究所, 1985.
_____,「16世紀의 湖南詩壇과 石川 林億齡」,『石川 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서출판 라이프, 1996.
_____,「光州의 博山과 松川 梁應鼎」,『古詩歌硏究』6, 韓國古詩歌文學會, 1999.
이재숙,「靈川子 申潛의 삶과 詩世界 - 幽人의 삶과 意識 變化 樣相을 중심으로」,『동양한문학연구』23, 동양한문학회, 2006.
李海濬,「朝鮮 中期의 湖南士林과 林億齡」,『石川 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서출판 라이프, 1996.
林容柱,「石川 林億齡先生의 生涯와 선비사상」,『방통대논문집』8, 1988.
_____,「石川 林億齡 先生의 生涯와 思想」,『정책과학연구』3,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1.
林熒澤,「『石川集』解題」,『石川集』, 여강출판사, 1989.
丁益燮,「星山別曲의 作者攷 - 石川製作說에 대한 異議」,『韓國文學硏究』2, 경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5.
_____,「『石川集』과 星山別曲」,『한국문학연구』1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9.

_____, 「『석천집』을 읽고」, 『금호문화』 48, 1989.
_____, 「星山別曲의 再考 - 影印 『石川集』을 중심으로」, 『鶴山趙鍾業博士華甲記念論叢』, 1990.
池承鍾, 「『聽松集』 解題」, 『南冥學硏究』 9, 慶尙大學校 南冥學硏究所, 1999.
최재남, 「송순 연구의 과제와 전망」, 『古詩歌硏究』 19, 韓國古詩歌文學會, 2007.
崔漢善, 「石川詩에 나타난 思想的 傾向」, 『대구어문총론』 10, 대구어문학회, 1992.
_____, 「湖南詩歌의 風流考 - 石川과 松江을 중심으로」, 『古詩歌硏究』 1, 韓國古詩歌文學會, 1993.
_____, 「石川 林億齡 詩文學 硏究」, 成均館大學校 박사학위 논문, 1994.
_____, 「石川詩의 作品世界」, 『石川 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서출판 라이프, 1996.
洪瑀欽, 「石川 林億齡의 環境과 生涯」, 『石川 林億齡의 文學과 思想』, 도서출판 라이프, 1996.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한문교육	학 번	20088033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강 미 한문: 姜 美 영문: Kang Mi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송화마을아파트 313동 904호				
연락처	019 * 9289 * 0516 E-MAIL: herbmi77@naver.com				
논문 제목	한글 : 석천 임억령의 교유시 연구 영문 : A Study on Sukchon Im Uk-ryong's Poetry on Friendship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11년 2월 일

저작자: 강 미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